

국통조 85-12-1897

2000年代 東西獨의 共存類型

國 土 統 一 院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研究結果 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2000年代 東西獨의 共存類型

研究執筆責任：白 京 男

東國大學校 卒業 (1965)

日本早稻田大學大學院 (1972)

獨逸München 大學 政治學博士 (1977)

東國大學校 教授 (1978~現在)

刊行責任：洪 千 壽

調査研究室事務官

國 土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目 次

I. 序 論	3
1. 獨逸問題의 本質	3
2. 研究範圍와 課題	7
II. 獨逸問題의 進展	10
1. 유럽과 獨逸國民國家	10
2. 第2次 世界大戰의 終戰과 獨逸分斷	13
III. 東西獨關係의 緊張緩和와 兩獨關係의 正常化	18
1. 西獨의 現實認識과 獨逸問題에 있어서 西獨의 이니셔티브... 18	
2. 基本條約締結과 兩獨關係發展	22
(1) 對話의 制度的裝置：基本條約	22
(2) 東西獨關係의 發展	25
(3) 多元的 交流를 통한 分斷克服의 노력	28
IV. 獨逸問題에 대한 兩獨의 基本立場	34
1. 西獨：多元主義를 指向하는 統一	34
2. 東獨：共產主義에 의한 統一	43
V. 2000年代 東西獨 關係	53
1. 東西 對立 構造속에서의 兩獨逸	53
2. 2000年代 東西獨 共存類型	66
註	76

I. 序

1. 獨逸問題의 本質

1984年9월에 예정되었던 동독의 國家評議會 議長이며 사회주의 통일당의 서기장인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의 서독 방문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끝내는 소련의 강력한 반대로 취소되자 東西獨 問題는 결코 東西獨 두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이 새삼 입증되기에 이르렀다.

1985년은 또한 세계 제2차 대전 終戰의 40년에 이르는 해이다. 東西分斷의 現實을 인정하고 兩獨 共存의 기틀이 이루어진 1972年 東西獨 基本條約 締結後 독일은 분단의 고통을 극복해가면서 그 關係改善에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들 민족적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접근노력이 현실적으로 짊어지면 짊어 질수록, 그들 정치접근의 限界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을 끌게 한다.

서독정부의 독일민족의 동질성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은 본래 지금까지 우방국들 조차 독일의 「민족주의」와 독일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中立主義」운동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정색을 하면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음은 독일연방공화국의 自意識에 찬 外交政策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외교가 뜻하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정치적 목표와 독자적인 정치적 역할에 대한 회의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독일의 行動의 自由가 中歐에서 東西關係의 對立과 競爭秩序를 無力하게 하지 않은 戰後 世界共同管理秩序인 알타體制內에 한정되어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독일인들은 다시 유럽에서 독일과 독일인의 위치에 대한 再確認의 기도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통일문제의 본질을 역사적 성격에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독일이 그들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民族自決은 유럽 대륙에 또 다른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다는 環境認識 아래 民族 再統一을 長期目標로 설정, 두 독일간의 關係正常化로 주변 강국의 한정된 理解 속에서 善隣關係를 지속하여 갈 수 밖에 없으므로 그들 민족문제를 역사적 성격으로 규정해가면서 민족의 좌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라 하겠다.

독일은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大國의 세력과 이익이 교차하는 유럽 政治構造 變化의 核을 이루어 왔다. 역사적으로 統一된 독일의 존재가 유럽 대륙에 있어서 힘의 均衡概念에 늘 불행한 기여를 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도 다시 통일된 독일의 비중은 늘 유럽 인접국가의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분단에는 직접적으로 제 2 차 대전의 독일에 대한 책임추궁에 따른 징벌적 분할점령과 군국주의 재생 방지의 기틀이 필요하다는 주변국의 逆說的 認識이 엄중하게 교차되어 있다.

비스마르크 시대로부터 1945년 까지 독일은 그들 자체의 노력을 증대함으로써 마지막에는 독일의 힘을 넘어선 지나친 노력으로 세계

사에 불행한 기여를 하였다. 그 댓가로 독일은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主體的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도 분단된 對象的 存在로 되고 말았다.

1969年 브란트 정부에 의한 정권교체 이후 추진된 본의 東方政策은 독일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독일문제를 뒤로 미루고 제 2 차 세계대전후 형성된 權力政治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 동유럽과 서독의 관계정상화를 가능케 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Bundesrepublik Deutschland = BRD)은 소련과 「武力拋棄協定」(Gewaltverzichtsab-Kommen), 그리고 다른 동구 국가들과의 外交關係형성을 한뒤 분단의 심화를 막기 위해 1972년 기본조약과 더불어 「獨逸民主共和國」(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DDR)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동방조약의 단계적인 작업에 물론 緊張緩和에 가장 의미있는 내용을 이루는 베르린 문제에 관한 4대 전승국의 협정이 속한다. 베르린 조약으로 서베르린은 BRD의 國際法上 構成部分은 아니지만 BRD 도시의 西쪽 부분으로 소련에 의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리차드 뢰벤탈 교수의 말대로 이로써 동구 여러나라들과의 긴급분쟁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동구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는 서측 국가 일부에 라팔로 조약과 같은 不信을 가져 오기도 하였으며, 특히 1981년 폴란드에서 비상사태 선포시 서독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프랑스는 자연적으로 불만의 태도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독에 대한 의구심은 東方政策이 10여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BRD의 大西洋共同體에의 확고부동한 신뢰와 결속의 지속으로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있음이 사실이다. 50 년대에 NATO 와의 거리를 둔 중립화·평화운동의 경향이 있었으나 BRD 의 內·外의 安定은 西歐共同體와 연결되어 있으며 건설적인 동방정책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서구공동체와 관련속에서 추구한다는 입장은 전후 서독의 意識에 오랫동안 강력하게 새겨져 있고, 그러한 태도는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후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BRD 의 DDR 과의 協力, 그리고 소련의 세력권 아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진전은 더 이상 혼란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는 1982년 수상이 된 헬무트 콜 (Helmut Kohl) 정부 이후도 변함이 없다.

70년대 말과 80년대 초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과 NATO에 의한 歐洲에의 核戰力 配置 이후 東西關係가 긴장으로 치달은 때도 본과 동베르린 관계는 解氷을 향하여 서로 놀랄만한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 사회민주당 정부의 동방정책을 비난하여 오던 서독 기독교사회당 당수 프란츠 요셉 스트라우스 (Franz Josef Straus) 조차 東西獨의 人的·物的 交流가 독일분단의 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의 주장을 바꾸었다. 그동안 東·西獨의 화해는 우월한 경제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하여 서독의 주도 아래 전개되었으나 동독의 대서독 화해에 소련이 제동을 걸므로써 西獨接近을 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은 포츠담 및 얄타협정에 따라 설정된 현 유럽의 국경들이 유럽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여 동서독 통일의 불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독일을 둘러싼 가혹한 현실의 입증임과 동시에 독일인에게 자기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민족자결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서독 관계 2000年代는 흔히 알타체제라고 일컫는 미소 양 초강대국의 세력범위 확분, 그리고 여타 동서국가들 간의 데탕트 외교 및 상호교류 내지 교역의 획기적인 진전도 여부라는 불가피한 변수에 좌우된다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공통의 자유속에서 통일을 향한 독일인의 의지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장래의 정치적 현실임에 틀림없다.

2. 研究範圍와 課題

독일인들은 그들의 국가적 통일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現實은 통일의 달성과는 멀리 인식되어 진다고 한다. 독일인들은 분단문제와 관련되면서도 독일문제와 독일의 국가적 통일문제는 언어상 區分하여 사용되어 왔다. 그것은 「독일의 국가적 재통일」이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 표현은 주변국의 원초적 감정을 자극하고 또 그것이 實現 不可能한 꿈이라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두개의 국가로 분단이 고착된채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되던 지난날과는 달리 1984년 호네커 동독공산당 서기장의 서독 방문 취소와 종전 40년을 즈음하여 동서독의 장래관계에 관한 「독일문제」가 論難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재통일문제 또한 관심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사실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1950년대 독일의 비핵지대화 와 중립화를 통한 재통합에 상당한 흥취를 느껴 본적이 있었으나 미국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쳐 흐지부지 되고 말았으나 黨內에는 아직도 그 같은 지향

의 저류가 만만치 않게 흐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독일의 젊은 전
후세대의 폭넓은 平和運動의 확산은 독일 통일문제와 관련 과소평가
해서는 안된다. 한편 제 3차 세계대전 만이 독일통일의 신국면을 개
척할 수 있으리라는 어설픈 관측마저 들고 있으나 그 경우 主戰場
은 미국과 소련의 쌍방 핵무기가 직접 도입되어 있고, 쌍방 지상군
이 상주하고 있는 독일땅이기 마련이고 최대의 피해국민 역시 독일
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재통합이 어려운 것과는 다른 차
원에서 양독간의 多方面的 交流 확장은 필지의 세로 내다보게 한다.
양독 내부의 긴장완화는 이에 따라 필연시 되지만 그것이 독일인의
분단고통 경감에는 공헌할 망정 미국과 소련의 두 초대국의 세력범
위 확분에 어떤 변혁을 초래하리라고 관측되는 날이면 모스크바와 워
싱턴으로부터 그때 그때 제동이 걸려올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
된다. 이 경우 독일인의 내부 統一意志는 좌절로 남고 독일 민족성
과 정치문화에서 順應主義가 어쩔수 없는 환경인식 때문에 국제정치
분야에서 정착될 듯도 하지만 독일인의 역사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이
쉽게 소실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21세기인 2000년대는 불과 15년 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독일문제의 현재는 문화적·역사적·정치적 상관성을 맞는 유럽에서 독
일의 과거 역사가 축적되어 이루어졌고 그 장래는 현재와 과거의 연
속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2000년대 동서독 공존의 형태를
전망하는 것이 본 論文의 課題이다.

실제 현재 獨逸의 分斷은 유럽의 分斷을 의미하므로 獨逸問題와 유
럽의 통일은 불가분의 關係에 있다. 그러므로 獨逸問題는 獨逸 한 나

라만 떼어 그 해결을 시도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유럽을 둘러싼 전반적인 세계정세의 추이와의 상호관련속에서 검토를 요함은 물론이다. 또한 독일 분단의 극복은 유럽의 분단 극복과 병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음도 사실이다.

우선 기본조약 체결 전까지 독일문제 진전을 살피고, 기본조약 체결과 兩獨關係 發展 그리고 兩獨의 독일문제에 대한 기본적 태도 및 주변 강국과의 관계고찰을 통하여 독일문제의 앞으로 진전과 그 공존유형을 抽出하고자 한다.

Ⅱ. 獨逸問題의 進展

1. 유럽과 獨逸 國民 國家

독일역사는 독일의 독자적인 역사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유럽 자체의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 아래서 유럽은 늘 통일체를 형성하여 오면서도 유럽내에는 각 시대에 걸쳐 언제나 투쟁과 전쟁 그리고 협력이 있었다. 자신들을 자각하고 객관화하는 정신적 활동의 긴장속에서 각 국민의 경쟁이 극단의 상황까지 치달았을 때 유럽은 자기파괴를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럽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유럽 내부에서 어떤 한 국가의 역사는 동시적 전 유럽의 表象속에서만 처음으로 가능하다.

유럽에서 독일은 프랑스나 영국과는 달리 늦게까지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독일의 신성로마제국(Das heilige Romische Reich Deutscher Nation, 962-1806)이라고 하는 幻想的 帝國이 國民國家에로의 발전을 저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로마제국의 황제 역할을 한 독일의 국왕이 로마제국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독일 자체내에서는 수없이 많은 領地國家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독일인에 역사는 일정한 구체적인 사실을 던져 줌으로서 제국에 대한 꿈은 가시고 새로운 긴장과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프랑스 혁명에 의한 나폴레옹 제국의 출현이었다. 이제 독일인은 일정한 현실적 세력으로 결집된 한 국민국가를 형성하려는 정신 세계의 혁명이 일기 시작하였다.⁶⁾ 이러한 정신세계의 변혁 위에서 신성로마제국이라고 하는 환상

의 제국에서 해방되어 독일이 현실에 정착한 정치적 실체로서 유럽에 등장하자 전 유럽은 긴장을 잉태하게 되는 불행을 가져왔다. 여기서 독일문제는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독일문제는 독일 역사 자체와 같이 오래된 문제로 그것은 中部 유럽에서 政治的 組織體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문제 (die deutsche Frage)는 戰後의 시간이나 1945年 이후 이루어진 상황의 시간보다 오래된 문제인 것에 독일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봐야 겠다.⁷⁾

1848년 혁명으로 세워진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독일의 자유주의자와 이상주의자들은 독일 국가 통일을 실현하려 하였다. 그들의 노력은 보수주의 앞에서 좌절을 당하고 말았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독일통일의 시도는 독일의 각 지방특수 이익외에 각 민족에 따른 이익이 복합하여 있었기 때문에 중부유럽에 새롭게 통일된 한 민족 국가의 출현은 각국의 중요한 외교정책의 대상으로서 모든 유럽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으므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는 정치적 세력 均衡의 변경에 중요한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었다. 그때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독일문제는 유럽문제에 속하였다.⁸⁾

1848년 독일인들의 소망,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통일된 근대적인 독일 국민국가를 건설하여 국민 정치생활을 갱신하는 자유주의적·민주주의적 이상을 정치 현실에 실천하려는 이상주의적 정책이 실패한 후 獨逸은 강력한 권력과 현실에 입각한 權力政治 (Machtpolitik)와 現實主義的 政治 (Realpolitik)의 시대로 치달아 오스트리아를 무력으로 제외시킨 채 1871년 독일통일이 비스마르크 (Otto Von Bismark)의 군사적 제패로 이루어졌다. 독일통일은 또한 나폴레옹 전쟁으

로 인한 대프랑스 복수심을 이용, 프랑스에 대한 승리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독일의 통일로 유럽의 모든 국가의 관심은 독일에 쏠렸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인에게 통일된 하나의 생활권을 제공하여 유럽에서 다른 열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할 줄 모르고 그리고 지칠줄 모르고 급속도로 약진·팽창하는 독일 제국의 융성을 가능케 하였다. 1890년대 이후 독일인들은 비스마르크가 마련한 하나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강렬하게 결집하여 정치·경제적 모든 이점을 장악한 채 급진적으로 팽창하여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새로운 대국이 되었다. 外交에서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對獨逸 복수심을 두려워하여 프랑스의 孤立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多角的 對立關係의 기반 위에서 독일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비스마르크는 獨逸의 國力を 억제할줄 알았다. 그러나 1890年 비스마르크가 퇴장한 후 새로운 大國이 된 獨逸은 그 에네르기는 분화구를 찾아 폭발하지 않으면 안 될 무서운 힘이 내재하여 獨逸의 막강한 國力은 제1차 世界大戰에서 그 돌파구를 찾았다. 즉 비스마르크 이후 독일은 國力を 억제하는 제방이 터진 것이었다. 第1次 世界大戰에서 獨逸은 패배하고 베르사이유 조약이 독일에 부과한 가혹한 배상요구로 독일에는 현상변경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때 히틀러(Adolf Hitler)는 독일민족에 모든 가치의 최상을 두고 독일민족은 독일인이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독일 세계제국을 건설한다고 하는 히틀러의 결과는 폭력으로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여 유태인을 비롯한 다른 민족을 살해하고, 정복 그리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⁹⁾

第1次 世界大戰의 4年間に 걸친 대전쟁 동안 독일은 독일보다 엄청나게 큰 힘이 결집된 대세력들과 싸웠다. 그것은 독일과 싸운 대세력들이 독일을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인정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세계 규모에 걸친 대전쟁의 主戰場이 유럽에서 있었던 것은 유럽이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서 그 특권적 지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500만 이상의 사망자를 가져 왔다. 전쟁이 끝나고 전승국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독일에 돌리고 패배 상태를 영속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한 것이 베르사이유 체제였다. 제2차 대전의 결과는 제1차 대전의 결과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참전국 50여개국에 사망자는 5천 5백만명, 그중 소련인 사망자는 2천 2백만명, 부상자 3,400만명, 특히 유대인의 학살은 600여만에 달하였다. 제2차 대전때 유럽 각 국가는 히틀러 독일과는 共存할 수 없다고 確信, 엄청난 전쟁을 치른 뒤 독일의 패망을 가져 왔다. 두번에 걸친 대전중 중심적인 세력의 배치는 같아 독일은 2차 대전에서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을 상대로 하였다. 유럽의 운명과 밀접하게 얽혀온 독일은 유럽대륙에서 국민국가로 출발하여 비스마르크 초기부터 1945년까지 그 자체가 노력을 증대함으로써 최후는 그 힘을 넘어서 불행한 노력을 하여 유럽대륙에 힘의 균형의 파괴는 물론 불행한 세계사에 공헌을 한 셈이 되었다.

2. 第2次 世界大戰의 終戰과 獨逸의 分斷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戰勝國은 독일에 대한 소련, 미국, 영국

에 의한 분할 점령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독일의 무장해제와 비군사화 그리고 분할점령을 결의하였다.¹⁰⁾ 같은 해 7월 26일에는 프랑스의 독일분할점령에 참가가 결정되었다. 다시 1945년 8월 2일 포츠담 협정은¹¹⁾ 전독일의 분할점령 실시를 결의하고 독일이 인접국가와 전세계의 평화유지를 위협할 수 없도록 독일의 군국주의와 나치즘을 근절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과 오데르 나이제 以東의 독일영토를 폴란드 행정아래 그리고 東프로이센 북부를 소련의 行政아래 관리를 결정하였다.

전승국은 패전국 독일의 최고권위를 떠맡고 독일인 자신에 의한 정부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알타와 포츠담 결의는 戰勝國 相互間의 단결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聯合國間의 어려운 단결을 보증하여 온 주요조건은 그들과 共存이 불가능하다고 確信한 인류의 적 히틀러의 독일이었다. 그러나 1945年 5月 히틀러와 더불어 독일의 패전은 연합국간의 단결을 보증하여 온 그 주요조건이 없어지자 聯合國들의 단결은 붕괴의 징조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 2차 대전에서 나치스의 폭력에 고통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후의 독일의 再起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독일을 분열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되었다. 英國의 처칠(Winston L.S. Churchill)은 獨逸의 南北分割을 구상하였다. 남독일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합하여 도나우연방을 만들고 북방에 프로이센과 北獨逸을 합한 독일 연합국가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도나우 聯邦안에는 동의를 표하였으나 헝가리의 包畝은 반대하였다고 한다. 투

프랑크 大統領은 헝가리를 포함한 南獨逸·오스트리아 연방과 루르지방을 中心으로한 西獨逸 兩國을 설립한다는 計劃을 가졌다고 한다. 물론 프랑스도 全 獨逸統一을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한다.¹²⁾ 히틀러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재건 獨逸의 위험에 대한 보증을 바랐고, 戰爭中 드골은 라인강을 전후 獨·佛 國境으로 제안한 적이 있으며, 그후도 프랑스는 강경하게 전후 獨逸 분할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4 大國에 의한 분할점령후 西歐 3 地區로부터의 소련地區의 분리가 점점 명확한 경향을 보임으로서 모든 일은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소련지구에서는 그 생활양식도 달랐다. 부활된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은 社會統一黨 (Sozialistische Einheitspartes Deutschland = SED)으로 되었으나 그 지도권은 공산당이 장악하고 그 조치에 대한 당원의 투표가 허용되지 않았다. 獨逸 社會民主黨은 共產黨과의 합당을 거부하였는데 그것은 소련의 전독일에 確立하려고 하는 체제의 부인을 의미하였다.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소련 점령지구를 소련의 배상지구로 하고 서구 연합국은 그들 지구를 자유로운 배상지구로 하기로 하였다. 그중 10%를 소련에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서구 점령지구에서는 주민에 대한 필수품 공급확보를 이유로 1948년에 소련에 대한 물자 인도가 중지되었다. 소련은 소련 점령지구에서 공장을 해체한후 기계류의 대부분과 철도까지 압수하여 많은 배상물을 철저히 압수하였다. 동시에 土地改革 이름아래 私用地 몰수와 산업국유화등 공산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소련과는 달리 서방 점령지역에서 戰勝國은 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共産化를 막기 위하여 보복적인 對獨政策을 전환 1946年9月 美國과 英國의 점령지구 통일을 결정 1947年1月부터 실시, 경제권을 확대 인간과 문물 교류장애를 제거 경제상태를 호전시켰다. 美英地區의 통합후 프랑스도 이에 참가하였으나 소련은 결코 참가하지 않았다. 이미 冷戰이 시작되고 있었다. 소련은 獨逸 점령지에서 실시한 정책을 동구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행하였다.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를 불체비키화하였다. 불체비키화 단계는 거의 같았다. 최초는 공산당의 지도권 아래 모든 민주적, 평화애호적, 반파시스트적 勢力이 결성되어 공산당만이 주요 역할을 하여 人民民主主義를 確立, 최후는 一黨獨裁制로 정착되는 단계로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서방국가들은 공산주의적 제국주의를 오늘의 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獨逸의 經濟復興은 유럽復興에 있어 불가결의 요소로 되고, 이로 인한 서방 점령지구의 경제통합은 獨逸 聯邦共和國 創設에의 길을 시사하였다.

1948년에는 通貨改革을 실시하였는데 소련은 그들 점령지구 내에서 통화改革으로 인한 새로운 서측마르크가 도입된 베르린에 대한 봉쇄로 대신하였다. 바로 四國管理의 聯合國管理事會의 活動이 중지되고 1949년 독일에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수립됨으로서 모든 해악의 근원이라고 유럽열강들에게 보였던 비스마르크의 事業이 해체되어 1871年 비스마르크에 의한 독일통일 이래 유럽정치를 左右하여온 政治的 힘의 單位로서 獨逸은 더 이상 存在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제 2 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獨逸人들에게 그들 조국의 분단

이라는 쓴 현실을 가져와 그 무거운 짐을 오래도록 지게 하였다.

분단된 독일의 경계선은 西方世界 防衛의 제 1선이 되었고 동서 양진영은 독일의 분단선을 상호의 대결의 선으로 하여 힘과 이데올로기 분쟁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독일의 분단은 유럽의 분단이었다.

제 2 차 世界大戰은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켰다. 또 그 大戰은 오늘날도 미해결인 채 남아 있는 독일문제를 새로운 형태로 제기하였다.

獨逸의 分斷이 동시에 유럽의 분단이 된 것이다. 여기에 獨逸問題와 유럽의 통일은 文化的, 歷史的, 政治的 相關性과 불가분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

Ⅲ. 東西獨關係의 緊張緩和와 兩獨關係의 正常化

1. 兩獨의 現實認識과 獨逸問題에 있어서 西獨의 이니셔티브

미국과 소련이 다른 西歐列強들을 훨씬 능가하는 超強國으로 등장하기까지 西歐는 世界史의 중심지였다. 이전에 서구열강은 「힘의 균형」에 정치가 움직이는 權力政治의 主役이었다. 서구의 권력정치는 제 1차 대전과 제 2차 대전을 야기 그들의 거주지인 유럽을 主戰場으로 만들었고 두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代價는 세계사의 중심지를 워싱턴과 모스크바로 바뀌게 하였다. 主戰場이 서유럽이고 그 주역도 서구였으나 유럽의 戰後問題를 처리하고 국제질서를 재편성하는 1945년 2월 크리미아 반도의 얄타회담에서는 서구가 소외·격하되었다. 서구에서 미국과 소련은 獨逸의 分斷線을 中心으로 힘과 이데올로기의 분쟁을 지속하였다. 이와같은 冷戰의 상황속에서 서독의 아테나워 수상은 西方과의 關係에 우선을 두고 東方과의 外交를 거절하여 그의 外交는 冷戰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더욱 效果的이었다. 그의 강력한 反共立場에서의 再統一의 外交는 西獨만이 전독일을 대표한다는 「할슈타인 원칙」으로 대표된다. 나아가서 서독은 冷戰期에 美國에 軍事的·經濟적으로 依存하여야 되었고, 外交·政治의 영역에서도 그 行動의 영역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의 마샬計劃의 원조에 의한 경제부흥과 서독 駐屯軍에 의한 安全保障은 소련의 팽창의욕앞에서 서독을 지켰다.

국제질서의 구조는 영원히 不變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生命體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核時代에 들어와 軍事力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핵병기의 출현은 군사력의 대규모에 걸친 사용이 핵전쟁을 초래하여 체제를 달리하는 兩진 영간의 전면전쟁이 서로의 자멸과 전 인류의 과멸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데탕트를¹³⁾ 불가피하게 하였다.

데탕트란 軍事的·外交的 紛爭의 緩和 또는 東西關係의 긴장이 인식되어지는 地域에서 國家와 國家사이의 분쟁이나 긴장의 감소과정으로 풀이된다.¹⁴⁾ 1962년 쿠바위기사 소련의 首腦部는 종래의 「平和共存」을 진전시켜 「核共存」의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 1964년 흐루시초프 失脚 후 후임 브레즈네프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서방측과의 緊張緩和 政策의 方針을 답습하였다.

美國에서는 존슨 대통령이 1966년 데탕트정책을 제창하였다. 이와 더불어 존슨 대통령은 동서간의 환경개선에 의한 「유럽문제해결」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¹⁵⁾ 그것은 유럽의 심장부에는 부자연스런 선이 놓여 있으므로 동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동으로 노력할 틀을 제공할 때 獨逸의 統一이 可能할 것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유럽建設의 意味에서 獨逸統一을 달성하기 위해 동서간의 환경을 改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 초대국의 緊張緩和 指向은 東西間의 交流促進, 분쟁의 平和的 解決, 전쟁회피를 위한 분위기와 환경 개선을 위한 相互의 努力으로 나타났다.¹⁶⁾ 그것은 우선 1963年 部分的 核兵器 實驗禁止條約과 1968년 미국과 소련의 核兵器 擴散防止條約의 체결이란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1967년 12월 NATO 각료 이사회는 東西關係의 긴장완화를 促進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취할 努

力을 NATO의 목표로 設定할 것을 결의하고 獨逸問題 解決없이 유럽의 궁극적인 安定이 不可能하다고 확인하였다.¹⁷⁾ 동서분쟁의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東西接點에 놓인 獨逸에서 긴장완화없이 유럽과 東西間의 데탕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 1969년 닉슨 대통령은 NATO 본부를 방문하여 「대립의 時代는 지났으며 소련과의 交渉의 時代가 왔다」고 선언함으로써 데탕트의 東西間 분위기는 本軌道에 進入하였다.

데탕트는 한편 인정된 正統性的 유지와 國際秩序에 대한 인정의 의미를 包含하고 있었다. 즉 상대방을 認定함으로써 協力關係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際關係에서 緊張緩和가 진전됨에 따라 西獨政府를 독일에서 「唯一한 合法的 獨逸政府」이며 단독대표권을 주장하면서 東獨을 승인하는 國家와 國交를 단절하는 아데나워의 外交政策의 失敗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아데나워 外交政策의 지속은 西獨의 孤立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또 1960年代 프랑스의 드골 大統領에 의한 民族主義的 外交政策은 西獨의 外交政策에도 자극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西獨의 自主的인 外交政策의 요구가 높아졌다. 소련은 東獨과의 關係를 強化하고 獨逸統一은 西獨과 東獨의 雙方의 問題라고 하였다.

戰後에 西獨이 이룩해놓은 經濟力은 독일문제에서 政治的 交渉能力을 증대시킬 만큼 되었으며 獨逸은 그들의 政治的 지위를 經濟的 地位까지 높여야 될 관계에 직면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市場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外交的 孤立으로부터 脫出이 또한 그 前提가 되었다.¹⁸⁾ 戰後 西獨의 傳統的인 外交로서인 비공식적인 名稱 할슈타인

原則과 공식적인 서독의 單純代表權 그리고 唯一한 合法的 獨逸政府의 요구는 相互 依存的으로 進行되는 국제정세속에서 동방국가들 뿐만 아니라 第3世界와의 關係에서 그 한계를 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아프리카의 신흥 獨立國의 UN加盟이 增加하여 1960年代 後半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開發途上國의 수는 3分の 2를 차지 多數派를 형성하였다. 舊植民地로부터의 獨立國은 UN을 지배하는 大國主義에 비판을 하는 한편, 舊植民地國과의 經濟的 從屬關係의 청산, 南北經濟 格差의 시정에 대한 요구를 UN에 제출 大國中心 또는 北側 先進國 本位の 國際秩序에 대한 도전의 자세를 취하였다.

1960年代에 들어와 東獨은 이미 아랍의 여러나라를 中心으로 第3世界에 대한 外交攻勢를 전개하여 通商關係를 발판으로 外交關係의 樹立에 努力하여 政治的·經濟的 基盤을 굳혀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BRD의 外交는 유연성을 추구하여야 되었다.

한편 BRD 創設 初期에 지녔던 獨逸統一의 希望이 어렵게 되고, 獨逸의 분단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 오랫동안 더이상 변화될 수 없다는 요인임이 인식되어지므로서 현실의 국제정세는 지난 東西冷戰以後 經驗에 비추어 獨逸의 再統一이 不可能하므로 再統一의 환상을 버리고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여 가면서 최소한 민족의 問題를 大國에 依存하지 않고 스스로 論議를 할 수 있는 兩獨間의 制度的인 裝置만이라도 마련하자는 獨逸政治의 根本問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갔다. 즉 獨逸人들은 獨逸이 독자적으로 두 초강대국으로부터 獨立할 수 없는 엄한 現實을 正確하게 認識하게 된

것이다.

2. 基本條約 締結과 兩獨關係 發展

(1) 對話의 制度的 裝置 : 基本條約

1966년 「大聯立內閣」에 참가한 독일사회민주당의 브란트(Willy Brandt)는 外相으로 동구에 대하여 서독외교의 유연성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냉엄한 현실속에서 獨逸이 나아가야 될 길을 인식하였다. 그것은 獨逸問題는 유럽의 安全保障의 틀내에서 解決되어야 하고 東獨이 國家로서 存在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또한 유럽에서 東西화해는 兩獨間의 화해 없이는 不可能하다고 認識하였다. 이러한 브란트의 현실인식은 西獨國民의 합의와 지지를 얻어 1969年 선거에서 42.7%의 지지로 自由民主黨과 「小聯立政權」을 형성하여 獨逸政治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開拓하는 장을 열었다.

브란트는 東獨과의 關係改善에 앞서서 소련과 폴란드와의 交渉을 먼저 시작하였다. 브란트 수상은 우선적으로 소련의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은 對東獨과의 關係改善은 어렵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련은 동구권의 지도국으로서 몇몇 나라를 제외한 동구 각국의 서방측과의 外交는 소련의 승인을 必要로 하였으며 특히 동독은 獨逸問題解決에 있어서 그 열쇠는 소련에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브란트는 만일 소련과의 交渉 또한 獨逸과 특별한 역사적 關係때문에 交渉이 어려울 폴란드와 交渉에 성공한다면 다른 동구 나라들과의 화해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戰略

的인 洞察力을 가진 숙련된 外交技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브란트는 또한 1967년 4월에 東獨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하여 東獨政府機關과 交渉用意를 알릴 때¹⁹⁾ 英國을 訪問 西獨政府의 의지를 밝히면서²⁰⁾ 同盟國의 이해와 信賴를 얻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69년 11월 브란트 수상은 1966년 12월에 제안한 소련과의 「武力不行使交渉」의 再開를 촉구하여 12월 8일부터 交渉이 재개되어 1970년 8월 12일 모스크바에서 「獨·蘇條約」²¹⁾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西獨에 있어서 戰後 체결한 條約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條約은 분쟁문제에 대한 平和的 해결과 現在의 전유럽국가의 國境인정을 내용으로 하고 특히 서부國境을 이루는 오데르 나이제 國境線 및 BRD와 DDR의 國境의 불가침을 협정하였다.

모스크바는 첫째 이 條約으로 유럽의 戰後 國境에 대한 인정을 바랐고, 두번째로 Bonn 정부에 의한 DDR의 재평가를 바랐다. 이에 대하여 STD - FDP 연정의 Bonn 정부에 蘇聯과 원만한 關係樹立으로 동구권 국가들과의 關係改善 특히 東獨과의 國교정상화를 기대하였다.

1970년 11월에는 폴란드와의 교섭이 본격화하여 12월 7일에 國교정상화 조약을 체결, 현재의 國境을 인정하고, 經濟·學術·科學技術 및 文化의 協力擴大를 문서화하였다.²²⁾ 이어 1971년 9월에 4個國間的 「베르린 협정」이²³⁾ 체결되었고 이로서 서독은 서베르린의 서독과의 정치적 관계를 확실하게 보장받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서 동서독간의 기본조약 교섭의 전제조건이 형성되었다. 서베르린과 서방측으로 향하는 통로의 보장없이 동측과의 모든 조약은 효력발생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든 東方政策의 주력은 東西獨間的 關係에 있었다. 이러

한 동방정책과 병행하여 西獨에서는 學問的인 영역에서 양독간에 알려져 있지 않은 狀況에 대한 比較研究가 진척되어 1971년과 1972년에 內獨省에서 「民族狀況에 대한 보고를 위한 자료」²⁴⁾가 출판되었다. 이 자료에서 양독일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은 제외되고 두 독일과의 비교에서 두 독일국가는 다같이 先進工業國家 그룹에 속하는 것이었다. 機能的인 等價面에서 두 獨逸 國家를 國家의 機能, 社會의 機能, 經濟의 機能, 社會的 安全의 機能 그리고 行政의 기능수준에서 비교하였다. 이러한 比較方法은 지금까지 장벽과 가시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저편은 부정적, 이편은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실을 서로가 정확하게 認識하는 資料가 되었다. 물론 이 자료에서 西獨의 우월성은 어느 기능에서나 명확하게 나타났고 특히 DDR은 경제면에서 서독에게 현저하게 뒤쳐져 있었다. 경제·정치 체제면에서 BRD의 우수성은 독일문제를 해결하려는 努力에서 西獨의 이니시어티브를 強力하게 뒷받침하였고 이 문제에서 젊은 세대들은 舊世代의 내셔널리즘 대신 합리적인 自由·民主意識에서 브란트의 對東獨 政策을 지지하였다.

1972년 12월 21일에는 소련 양해의 구축을 기반으로 東西獨基本條約이 締結되었다.²⁵⁾ 基本條約은 (1) 一民族 二國家의 認定, (2) 紛爭의 군사적 해결포기와 現存 國境인정, (3) 雙方의 獨立성과 平等認定, (4) 兩 國民의 交流와 家族의 재결합을 촉진하고 經濟, 科學, 文化, 交通, 通信, 스포츠의 각 분야에서 交流, (5) 常駐 代表部를 각 국가의 수도에 설치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條約은 獨逸關係의 發展에 있어서 相互信賴 構築을 위한 基本

原則으로 이 條約 締結로 두 獨逸國家는 그들 民族의 장래에 대하여 大國에 依存하지 않고 對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1973년 7월 6일부로 효력을 발생한 기본조약의 意義를 서독측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條約은 獨逸分斷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구이며,
2. 獨逸 統一등의 重要한 問題에 있어서 서로 다른 立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交渉과 條約의 締結을 통하여 基本條約에 立脚하여 兩獨問題를 규정·해결해가야 한다.
3. 獨逸의 장래문제는 政治的으로도 法的으로도 未解決인채 남아 있으며,
4. 兩獨關係 發展의 장애물을 제거한 基本條約은 두 獨逸 國家에 條約의 틀속에서 獨逸問題의 克服을 위한 作業을 가능케 하였으며, 나아가서 전반적인 緊張緩和에 貢獻을 可能케 하였다.
5. 基本條約은 베르린 條約과 마찬가지로 베르린의 보장에 貢獻을 하였다.²⁶⁾

(2) 東西獨關係의 發展

기본조약은 獨逸에 두개의 國家가 存在한다는 현실을 인정하였다. 재통일이라는 채워지지 않은 民族的 소망이 결코 가까운 시일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現實이 이산의 아픔과 분단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은 民族의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데에 대한 兩獨의 合意 結果가 基本條約이었다. 그러므로 양독은 基本條約이 비록 두

국가를 인정했지만 통일에 결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기본조약 효력 발생후 두 獨逸國家는 단절과 대결로 인한 相互의 불신과 체제 개방을 제거하면서 두 國民相互間의 대화를 보다 간편하게 하는 方法을 꾸준히 모색하여 왔다.

相互間의 화해와 이해를 위한 접촉을 용이하게 하려는 兩獨의 努力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가져 왔다.

1973年 6월 21일 베르린 - 잘즈베델, 듀데르슈타르 - 보르비스, 오이셀하우젠 - 마아닌겐, 로덴바하 - 아이스펠트간 고속도로 개통, 양독간 여행 및 선물·소포협정 개정안 발효, 1973년 9월 20일, 東西獨 境界地域의 상수도 확대 및 유지원칙 협정, 경계지역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기본원칙 협정, 1973년 11월 5일 東獨에 의한 入國旅行의 최소교환량 증대 지시, 같은 해 12월 12일 境界地域의 事故防止를 위한 兩獨 情報交換 電話線 14個線 개통, 1974年 1月 21日 西獨旅行社와 東獨旅行局間에 觀光旅行 協定, 2月 13日 西獨域間 貿易事務所와 東獨 대외무역성 사이에 기계공구 구매 및 인도협정, 1974년 4월 25일 保健協定, 兩獨間의 여행자를 위한 무료 앰블런스 상주, 5월 8일 西獨 스포츠연맹과 동독체조 및 스포츠연맹 間의 스포츠관계의 규칙 의정서, 6月 29日 西獨의 一部地域과 東베르린의 자동차 전화개통, 12月 4日 兩獨旅行社, 觀光旅行協定の 年例的 연장합의, 12月 20日 東獨의 여행 및 交通改善 - 年金 生活者 여행의 支拂手段에 대한 최소한도 증액취소, 승용차 이용허가, 1975年 4月 14日 東·西 베르린간 290여선 자동차 전화 개통, 西獨의 電話 利用者 90%가 동베르린으로 전

화가능, 7月 30日~8月 1日, 슈미트 西獨首相과 호네커 동독수상의 헬싱키회담, 10月 13日~17日, 西獨 스포츠 聯盟의 公式代表가 東獨訪問, 12月 19日 베르린 통행 협정, 1976年 1月 14日 西獨交易 信用의 上限水準 年例協定, 3月 30日 체신지역 협정, 1977年 1月 17日~2月 6日, 東베르린에서 西獨의 학술서적 공식 전시회 개최 (15萬名 訪問客) 10月 19日, 兩獨 체신성 대표 1982년까지 서베르린을 포함한 兩獨間 702個線의 새로운 自動式 電話架設 合意, 1978年 11月 16日 베르린 왕래개선에 관한 협정 - 베르린·함부르크間 고속도로 建設 및 재정부담, 서베르린행 通過水路 보수 및 財政負擔, 텔로우운하의 재정부담, 베르린 교통개선과 재정상의 問題 절차가 包含, 1979年 9月 7日 兩獨間 長期貿易協定, 1981年 12月 11日 - 13日 슈미트 수상과 호네커 수상, 동베르린에서 第3次 兩獨頂上會談.²⁷⁾ 이 외에 基本條約의 특히 중요한 結果는 各 言論機關의 特派員을 서로 派遣할 수 있게 된 것이다. 西獨의 重要的 通信社 特派員을 비롯, 스피겔 (Spiegel), 포르바르츠 (Vorwärts), 함부르크 모르겐 포스트 (Hamburger Morgenpost), 베스트 도이체 알게마이네 짜이퉁 (Westdeutsche Allgemeine Zeitung), 베스트 팰치웨 룬트쉬우 (Westfälische Rundschau), 슈트도이체 짜이퉁 (Suddeutsche Zeitung), 하노버 노이에 프레세 (Hannoversche Neue Presse), 라인 포스트 (Rheinische Post), 스테른 (Stern), 프랑크 프르트 룬트쉬우 (Frankfurter Rundschau), 2DF TV, ARD TV 등이 동독에 かけ하고 있다.²⁸⁾

이와같이 1972年 基本條約 締結 以後 兩獨關係는 그 分斷의 아픔을 덜고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려는 兩獨의 努力으로 西獨 國民

은 언제나 東獨의 친지 방문과 旅行이 자유롭고 兩獨間의 交易關係는 해마다 增加, 그리고 文化交流를 통한 상호이해 範圍 擴大로 분단의 비극을 최소화 해가는데 성공하고 있다. 두 政府, 두 國家, 두 國民을 인정한 서로가 實質的 同伴者가 되어 實際的·人道的 問題 發展에 具體的이고 詳細한 努力을 통하여 境界선의 장애를 사실상 제거하여 가고 있음은 基本條約 締結이 결코 獨逸 統一의 장애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統一의 實質的 要件인 人間 相互間의 동족의식을 強化해 줌으로써 외적 장애요인인 國際環境 즉 유럽의 分斷狀況이 克服되면 쉽게 統一될 수 있는 條件을 形成하여 가는데 貢獻하는 결정적으로 重要的 要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獨逸民族은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合理的인 길을 택하게 된 셈이 되었다. 그들의 意圖는 獨逸 統一의 內在的 條件은 우선적으로 이루워 놓고 보자는 것이다. 國境선의 움직임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獨逸의 破滅에 該當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國境線을 넘은 서로의 왕래를 可能케 하는 것은 서로의 政策目標이어야 된 것에 合意가 이루어진 것이다.

(3) 多元的 交流를 통한 分斷의 克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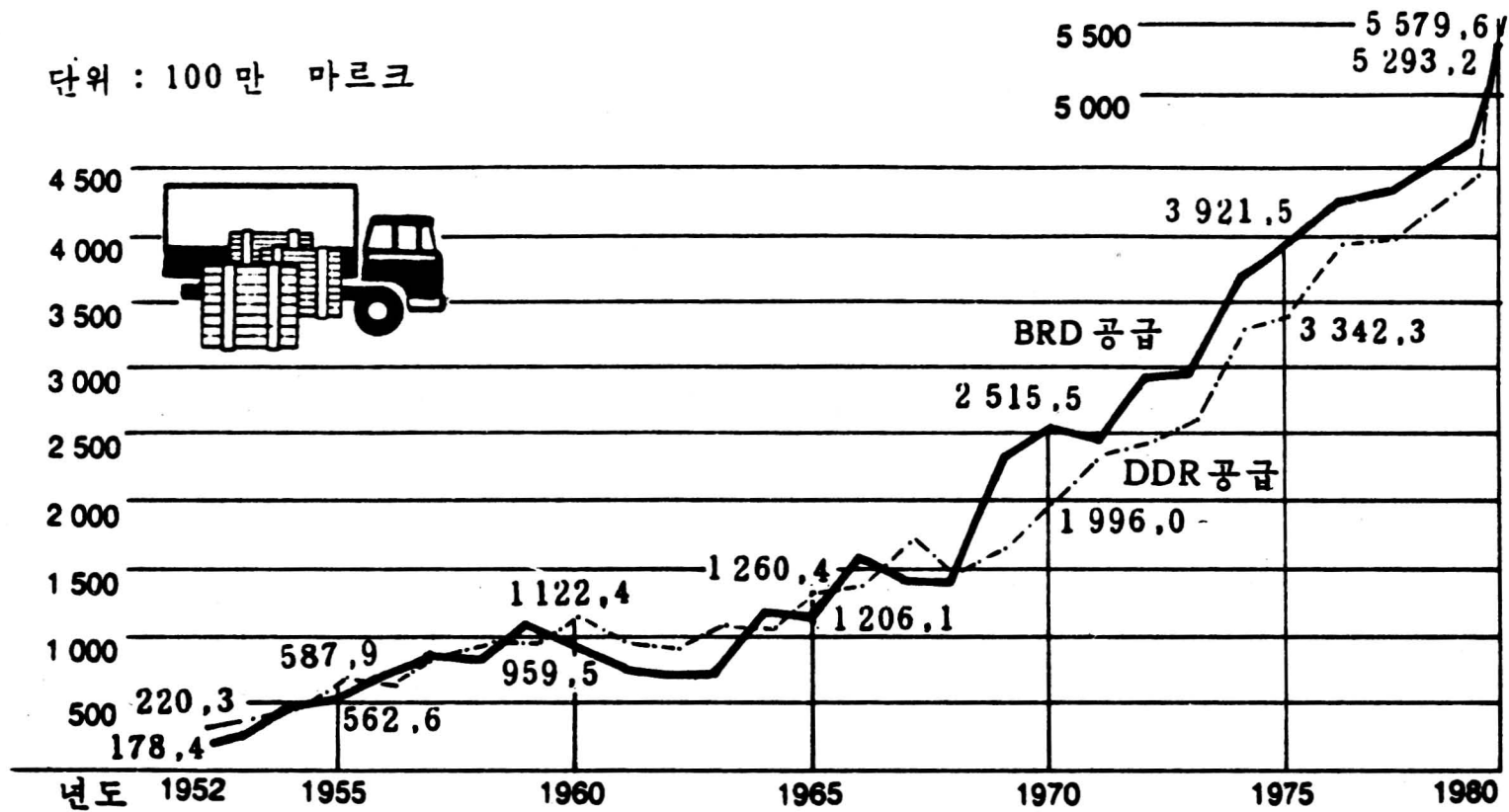
基本條約 締結과 그 以後 兩獨의 꾸준한 작업을 통한 相互 協力과 화해의 움직임은 政治的 分斷을 除外하고는 두 獨逸이 實質的으로 과연 分斷狀態에 놓여 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양국關係를 發展시키고 있어 分斷으로 인한 이질감이 해소되고 있다.

社會民主黨의 東方政策에 반대의 공세를 펴왔던 기독교민주당 콜정

부는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그대로 계승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基本條約의 聯邦共和國 憲法에 대한 위헌여부로 앞장서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던 바이에른 기독교사회당의 당수 스트라우스도 동독을 방문한 바 있다. 條約의 尊重은 國際法上的의 狀況尊重이며, 獨逸問題는 아직 未解決인채 남아있다고 하는 콜수상은 分斷된 獨逸民族의 狀況에 대한 報告에서 「우리들은 人間들의 相互訪問을 바란다. 國境을 變更시키지 않고 모든 우리의 이웃과 人間的인 理解를 通하여 分斷을 克服하는 것이 現 政府의 獨逸政策과 東方政策의 核이다」²⁹⁾라 선언하고 獨逸政策을 長期的으로 유럽에서 平和政策의 한 要素로 推進할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西獨은 DDR을 다른 外國이나 또 다른 外國이 西獨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한 國家가 아니기 때문에 두 國家 사이에 關係組織은 더욱 굳어지고 있다고 본다.

兩獨關係를 굳히고 兩獨關係를 안정시키는 가장 本質的인 要因은 相互間的의 交易關係이다. 두 獨逸은 그들의 關係가 다른 外國과의 關係 아닌 특별한 關係이기 때문에 交易에서 輸入이나 輸出대신 供給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 交易量은 基本條約 締結이후 엄청나게 增加하고 있다. 이는 關稅없는 貿易으로 1952년에 西獨은 1億7千8百4拾萬 마르크의 物品을, 東獨은 2億2千3拾萬 마르크의 物品을 보냈는데 1970年 西獨은 25億1千5百5拾萬 마르크, 東獨은 19億9千6百萬 마르크, 1975년에는 西獨 39億2千1百5拾萬 마르크, 東獨 33億4千2百3拾萬 마르크, 그리고 1980년에는 西獨 52億9千3百2拾萬 마르크, 東獨 55億7千9百6拾萬 마르크에 해당하는 物品을 相對國에 供給하였다.³⁰⁾ 西獨은 東獨에 있어서 蘇聯 다음가는 貿

1962 年부터 1980 년까지 東西獨交易의 發展



資料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Zahlen-Spiegel, 1983, p.98.

易 對象國이 되었고 특히 베르린은 東西貿易의 거래장이다. 1984 年 末頃에는 두 나라의 交易量이 1 百 60 億 마르크에 이르렀다고 한다. 西獨은 對東獨 經濟關係를 兩獨關係와 全般的인 東西關係의 安定要因으로 보고 있다.

東西 왕래문제에 있어서 東獨訪問에서 60 日까지 머무를 수 있는 西獨國民은 制限없이 東獨을 訪問할 수 있고 한해에 60 회까지 갈수 있다. 西獨人의 自由로운 왕래와는 달리 東獨 國民은 65 세 以上の 노령자와³¹⁾ 관혼 상제등 特別한 사유가 있어야 西獨을 訪問할 수

있다. 또 西獨人의 東獨訪問에는 하루 머무르는데 25 마르크씩을 의 무적으로 소비해야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실제 3대 1의 환율을 같은 액수의 東獨 마르크와 交換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또 東베르린 訪問客에 대하여 西獨人의 한사람당 서베르린 政府가 동베르린 政府에 5 마르크씩을 支拂한다. 東獨의 國民들은 죽음을 무릅쓴 西獨行 脫出을 하지 않아도 좋다. 訪問緩和와 더불어 法的 節次를 통하여 西獨에의 이주가 可能, 1984년에는 4萬以上の 東獨 住民이 西獨에 移住하였다. 電話의 線이 1969年 34回線에서 1980년에는 608回線 그리고 現在 1400회선을 초과 1965年 50萬 통화에서 1980년에는 135萬 통화 그리고 1982년에는 230萬 통화로 增加하였으며 그중 87%가 自動電話로 使用되고 있다.

東西獨間의 편지는 西獨에서 東獨으로 1982년에 7천 5百萬통이, 東獨에서 西獨으로 7千萬통이, 그리고 소포는 西獨에서 東獨으로 2千 7百萬 꾸러미가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으로는 9百萬 꾸러미가 보내졌다.³²⁾

나아가서 東西獨間의 여행왕래 횟수를 보면 西獨에서 東獨과 東베르린 왕래가 1970년에 2百6拾5萬4千回에서 1981年 5百2萬으로 東獨에서 西獨과 서베르린 왕래가 1970년에 1百4萬8千回에서 1981年 1百6拾萬1千回로 增加하였다.³³⁾

基本條約 締結 前과 後를 西獨人의 東獨과 東베르린 여행왕래 회수 별로 比較하면 1967年에서 1972年까지 月平均 105,500 회였는데 1972年부터 1982年까지는 月平均 246,000 회수로 增加하여 133%가 증가하였다.

西獨은 東獨經濟의 向上을 바라고 있다. 東獨의 經濟向上은 東獨住民들의 生活向上을 가져와 두 獨逸國民間의 友誼의식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이다. 西獨政府는 東獨에 借款을 提供하고 있다. 獨逸銀行에 東獨의 預金口座를 設置하고 東獨의 口座에 돈을 넣고 일정한 限度내에서 대출을 권한다. 1983年 6月에 西獨政府는 4億달러 相當의 第1次 銀行借款 支拂保證을 서고 6月 以後 獨逸銀行으로부터 9億5千萬 마르크에 支拂保證을 했다고 한다.³⁴⁾ 西獨은 東獨이야 어떻하든 東獨의 길을 닦는데 그들의 체제의 우수성과 든든한 經濟力에 의해 발산되는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西獨이 東獨에 대한 요구 條件은 借款에 대한 이자가 아닌 兩獨關係改善을 돕는 措置에의 協助일 뿐이다. 그것은 西獨 移住를 원하는 東獨 國民에 대한 移住許可 緩和, 兩獨 國民들의 相互訪問 및 旅行條件의 緩和, 西獨人の 東獨에서 하루 체재조건인 25 마르크 條件의 완화, 장벽에 설치한 자동기관총좌 및 지뢰의 철거등 국경의 非軍事化이다.

東獨政府는 西獨移住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주를 許可하지 않는다. 東獨의 體制에 反對하는 반체제 인사들에서 西獨政府로부터 돈을 받고 許可를 하는데 40대의 의사는 6萬달러, 教師는 2萬달러, 숙련공은 1萬달러 가량이라고 한다.

스포츠나 文化分野에서도 이질현상을 克服하기 위한 努力이 強化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극작가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 - 1956) 作品들이 兩獨逸의 극장에서 상영되고, 西獨 서점에서 東獨의 책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두 獨逸은 또한 獨逸語 사전을 공동으로 편

찬하여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西獨政府는 獨逸間 文化政策의 면을 外國에 대한 文化政策과 同一視, 外國에서 DDR의 文化政策 活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東獨과의 競爭的인 비방선전에서 보다 공동의 文化的 遺産을 나타내려는 努力에서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藝術品の 展示會는 그것이 DDR에서 왔건 또는 BRD에서 왔건 모두 獨逸文化임을 강조하려는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獨逸民族의 文化的 表現과 獨逸文化의 증지에 대한 要求에서 相互의 基本立場을 交流하여 가면서 파트너로서 協力の 영역을 넓혀 간다는 것이다.³⁵⁾

1981年 12月 31日 現在 西獨의 海外公館과 大使館이 있는 곳은 131個 도시이고 東獨의 海外公館과 大使館이 있는 곳은 1982年 5月 1日 現在로 101個의 都市이다. 그중 같은 都市에 東西獨 公館이나 大使館이 같이 있는 곳은 95個 都市이다 (Zahlem-Spiegel, p. 32-33).

年間 約 70편의 西獨 文化記錄映畫가 東獨에 販賣되고 西獨 역시 극영화등 130여편의 東獨 文藝作品을 사들이고 있으며 東獨은 앞으로 西獨의 主要 日刊紙를 東베르린에서 販賣할 豫定이라 한다.³⁶⁾

以上과 같이 두 獨逸은 交易의 增加, 人的 交流, 편지의 내왕, 電話의 通話, TV시청, 각종의 스포츠·文化 交流等の 共同 프로그램을 통한 兩獨의 協助的인 生活樣式의 擴大로 獨逸 統一의 앞날을 앞당기는 合理的인 方法에 最善을 다하고 있다. 西獨의 라디오프로는 東獨에서 100% 청취가능하고 東獨 國民의 85%가 西獨 TV 방송을 視聽할 수 있으며 西獨 記者들의 동독 과견근무로 東獨 國民들은 東獨에서 일어난 일을 西獨 TV와 라디오를 통하여 알 수 있다.

IV. 獨逸問題에 대한 兩獨의 基本立場

1. 西獨: 多元主義를 指向하는 統一

第2次 世界大戰의 종전이 獨逸에 준 선물은 패전과 分斷이었다. 分斷은 兩獨 共通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分斷 以後 각 진영에서 전개되는 政治的 內容은 전혀 다른 것을 指向하였다. 西獨에 주어진 狀況은 自由와 多元主義, 그리고 民主主義를 內容으로 한 사회체제였고 저쪽 동쪽은 이와는 전혀 다른 一黨獨裁體制의 共產主義의 멍에를 둘러쓰게 되었다.

그래서 1945年 5月 8日은 獨逸에서 大戰이 끝난 날로 獨逸民族에 있어서는 자각과 회한과 希望의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날이었다. 獨逸은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히틀러의 독재와 압제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날이기도 하였다. 1985年 2月 27日 콜수상은 「國家現況에 대한 報告」에서 「5月 8日은 獨逸의 항복과 더불어 나치스 정권이 몸서리치도록 무서운 종말을 고한 날」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獨逸에 있어서 종전의 날은 끝남과 시작을 의미하는 날로써 끝남이란 야만적인 전제정치와 끝임과 동시에 자유롭고 民主的인 法治國家를 建設하는 시작의 날이었다. 그날을 맞이하여 獨逸人들은 독재의 崩壞를 즐거워함과 동시에 독일의 破壞를 슬퍼하고 第2次 世界大戰에서 專制政治로 犧牲된 5千5百萬 人命喪失을 슬퍼하는 날이다.

1949年 獨逸聯邦共和國이 創設되고 韓國戰爭을 起點으로 동서간장이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자 獨逸問題를 中心으로한 冷戰이 언제 熱

戰으로 변할지 모르는 狀況 아래 서방측은 소련의 위협에 방어태세를 強化시켜야 하였으며, 分斷된 獨逸의 境界線은 西方世界 防衛의 第 1 선이 되었다.

東西對立의 격화는 獨逸에 새로운 狀況을 가져오게 하였다. 즉 1950 年の 韓國戰爭은 獨逸 經濟에 뿐만아니라 獨逸의 政策에도 커다란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西獨은 共產主義의 威脅을 저지하기 위하여 독일이 공헌할 수 있는 길을 고려하며 유럽 防衛를 위하여 독일의 보조부대 제공을 연합국에 제안한 결과 독일의 영구 非武裝化를 결정한 나라들의 不安은 남아 있었으나 西方의 美國, 英國 그리고 프랑스는 그들의 責任을 짊어지는 西獨의 非軍事化보다도 소련과 共產主義에 對抗하기 위하여 全體의 防衛力을 增強하고 西獨의 軍事的 可能性을 活用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認識하기에 이르렀다. 1950 年 9 月 NATO는 韓國戰爭에의 응답으로서 武力增強을 서두르면서 西獨을 東部 엘베강에서 防衛하여야 된다는 戰略을 採擇하였다.

西獨을 지키려는 戰略은 西獨의 재군비를 必要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西獨을 包含한 유럽의 經濟的·軍事的 綜合計劃이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 冷戰에 자극된 結果인 西獨의 부흥은 西獨을 둘러싼 이웃나라들에게 중대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1950 年 이래 美國은 西獨의 軍事的 기여가 없으면 소련의 공격에 대한 서방 방위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西獨의 재군비를 주장하였으나, 프랑스는 보·불전쟁 및 2 회에 걸친 世界大戰의 체험으로 인한 對獨逸 공포감때문에 西獨의 재군비를 꺼렸다. 西獨의 재군비 필요성과 프랑스의 對獨 공포와의 조정의 산물은 西獨이 유럽에 통합됨으로서 獨逸의 國力이 全

유럽에 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防止하고 유럽의 복지와 安全保障에 기여하는 것이었다.³⁷⁾

유럽통합의 제 1 보는 당시 프랑스 외상 로베르 슈망의 「프랑스와 獨逸의 오랜 對立을 解消하여 兩國의 石炭 및 鐵鋼資源을 共同의 기관 아래 둔다」³⁸⁾는 슈망 플랜에 의하여 1950年 5月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브르크 그리고 西獨은 「구주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결성하였다. 西獨의 유럽에의 복귀는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인 對立을 解消하여 西歐를 결성하고 經濟開發을 시도하는 對蘇戰略에도 일치하였다. 西獨의 歐洲鐵鋼共同體 가입은 西獨이 國際市場에서 競爭의 機會에 參加를 의미하였고 과거 적대국과 화해를 회복하는 첫걸음임과 동시에 主權을 회복하여 서구열강과 서독의 관계를 強化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유럽의 여러 나라는 유럽통합의 비전 아래서 과거불행을 초래한 편협한 國家主義的 충성을 버리고 넓은 유럽에의 西獨의 충성을 기대하였다.

西方側의 對蘇戰略에서도 西獨은 유럽대륙에서 소련 다음으로 強力한 國家이기 때문에 西獨은 언제나 問題의 發生源이 될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이에 1954年 10月 23日 벨기에, 프랑스, 룩셈브르크, 네델란드, 英國, 이탈리아 그리고 西獨이 「파리협정」³⁹⁾을 체결함으로써 西獨은 主權을 회복하고 재군비의 문을 열게 되었으며 같은 해 5月 9日에는 NATO의 會員國이 되었다.

現在 西獨이 처하고 있는 西獨의 生存과 관련된 安全保障 상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1. 西獨은 유럽을 지배할 수 있는 우세한 힘을 가진 유럽내에서

유일한 초강대국 세력이고, 그들이 아직 전부를 써보지 않은 軍事的 잠재력은 유럽 국가의 綜合한 軍事力을 훨씬 능가하는 소련세력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2. 西獨은 하루 저녁 사이에 전격적으로 狀況이 변할 수 있는 分斷 國家이다.

3. 西獨은 유럽공동체의 한 國家이다.

4. 西獨은 NATO의 한 同盟國家이다.

5. 西獨은 UN에서 거부권을 行使할 수 없다.

6. 西獨은 核武器를 保有하지 않고 있다.

7. 西獨內에는 NATO의 核武器가 配置되어 있다.

8. 西獨은 經濟大國이다.

9. 西獨人은 世界人의 記憶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0. 무엇보다도 獨逸은 自由, 多元主義, 民主主義를 尊重하는 西歐에서 民主主義 모범이 될 만큼의 自由로운 法治國家이다.

西獨의 行動의 自由는 이러한 條件의 틀내에 한정되어 있다.

經濟面에서 西獨經濟의 규모를 國民 總生産에서 보면, 1983년에는 1兆6,669億 마르크로 自由世界에서는 美國과 日本 다음의 第3위의 經濟大國이다. GNP를 지출구성에서 보면, 輸出 및 輸入이 各各 GNP의 32%와 30%를 차지함으로써 貿易依存도가 아주 높은 나라에 속한다.

1979년의 第2次 石油危機 以後 西獨經濟는 不振을 계속해오면서 物價高에 시달렸으나 1983년부터, 연료와 石油原價의 下落, 農產

物の 豊作, 賃金引上率 3 - 3.5 %로 인플레이 現象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

군사면에서 西獨의 防衛努力은 꾸준히 확대되어 NATO 地上軍의 50 %, 작전용 항공기의 30 %, 발트해 해군력의 70 %, 발트해 항공 병력의 100 %를 제공하고 있다. 兵力 50 만, 地上兵力 30 個 旅團, 12 個 師團의 지원병력을 가지고 있다.

獨逸海軍은 1954年 10月の 파리협정에 의해 연안 정찰에 제한되어 함대 3,000 톤 이하에 제한되었으나 1980年 7月 21日 이 제한이 해제되어 정찰해역도 노르웨이 해역까지 확대되었다. 서독 재무장 규제 緩和 理由는 西유럽의 단결과 유럽대륙의 방위에 있다. 3천톤급 전함외에 1천 8백톤급 잠수함, 6천톤급 구축함 8척, 5천톤급 훈련함등을 건조할 수 있게 하였다. 「西歐同盟」⁴⁰⁾ (Western European Union) 80年 7月の 결정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래 西獨의 무장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重要한 措置로 西歐의 防衛力 增強을 위한 획기적인 措置였다. 西獨의 해군력 增強에 대한 西歐 同盟의 규제철폐로 西獨은 아이슬란드 北歐圈 및 노르웨이 北部 노드케이프를 연결하는 3 각 海洋地域 防衛 分擔을 要求하여 왔다.⁴¹⁾

1981年 現在 西獨의 人口는 5千 9百 8拾萬으로 陸軍이 335,200 名, 空軍은 106,000 名, 海軍 36,500 名, 其他 17,300 名으로 兵士의 總數 495,000 名은 人口의 1%에 該當한다. 동원가능성은 125萬으로 人口의 2%이다. 其他 境界線 警察等이 40,000 名에 이른다.⁴²⁾ 그러므로 西獨은 經濟力과 軍事力面에서 NATO內에서 美國 다음가는 잠재력을 가진 國家이다.

政治적인 면에서도 西獨은 서유럽의 民主主義 國家群에서 흔들리지 않은 가장 우수한 民主國家의 모델이 될 정도로 安定되어 있다. 히틀러의 전제정치로 인한 第2次 世界大戰의 과국이 초래한 폐허에서 새 출발을 다짐한 西獨의 憲法 制定者들은 지난 歷史의 비극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西獨의 民主主義가 파쇼 정당이나 全體主義的 共產黨 앞에 스스로 지키는 「戰鬪的 民主主義」(Streitbare Demokratie)⁴³⁾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히틀러의 전제정치를 체험한 西獨은 自由 民主主義의 政治文化 形成을 目標로 삼고 國民에 대한 철저한 民主主義 政治教育을 통하여 또다른 비극을 되풀이 하려 하지 않는다.

西獨이 지향하는 多元主義的 民主主義는 民主主義의 競合理論에 기초하여 社會에 있어서 같은 정도의 正當性이 부여되는 利益이 存在하는 民主主義를 말한다. 政治的 意思形成은 여러 社會의 集團間에 公開 論爭의 過程의 結果로서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최소한의 公同의 확신이 必要하다. 견해의 多樣性과 社會的인 對立이 基本인 以上 絶對的인 바른 解決은 存在하지 않는다. 때문에 多數決原理가 決定의 기반이 된다.⁴⁴⁾ 중요한 것은 民主主義의 규칙을 침해하거나 不可讓의 人權을 침해하는 多數者의 專制가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政治體制에 대한 民主主義의 正當化는 당연하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시민은 政黨 가운데서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加하며, 議會, 政府 및 行政의 決定過程에 影響을 미칠 수가 있다. 西獨의 基本法은 자유롭고 民主的인 基本秩序를 強調하는 데 그것은 그 民主主義 체제가 全體主義 國家 체제와의 區分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자유롭고 民主的인 基本

秩序는 모든 폭력지배,恣意支配의 排除아래 多數派의 의사 및 自由와 平等의 原則에 따라 행하여 지는 國民의 自己決定에 기초한 法治國家的 支配秩序로 규정된다. 따라서 BRD의 자유롭고 民主的 基本秩序는 모든 全體主義的 경향에 반대됨으로 一黨 獨재체제인 共產主義도, 파시스트 체제도 許容될 수 없음을 말한다. 全體主義的 共產黨이나 파시스트의 지배는 西獨의 基本秩序와 전혀 다른 秩序體制에 해당한다. 이러한 면에서 西獨側에서 보면 東獨은 共產主義 獨재체제아래 종속되어 있고 民主主義的 自由를 拋棄한 狀態에 있기 때문에 道德的으로 正常化될 수 없는 정권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獨逸統一 問題에 있어서 西獨의 基本立場은 그들의 自由, 多元主義的 秩序, 民主主義를 바탕으로 한 統一의 비전을 제시한다. BRD의 공식적인 定說에 의하면, 獨逸問題는 未解決의 問題로서 獨逸 聯邦共和國의 基本法의 과업으로서 自由로운 決定에 의하여 獨逸의 統一과 自由를 實現하는 것이다. 따라서 Bonn 政府의 法의 解釋에 따르면 DDR은 外國이 아니고 DDR의 國民은 獨逸國民이다. 그러므로 모든 DDR의 市民은 독일연방 공화국의 여권을 요구할 수 있다. 1983年 여름 콜수상은 모스크바 公式訪問에서 記者會見을 통하여 獨逸統一은 長期的 目標로서 追求해야 되는 問題이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였다.⁴⁵⁾

1985年 6月 17日 BRD의 연방장관 레버 (Georg Leber)는 연방의회에서 獨逸 分斷에 대한 西獨의 사각을 명확히 하였다.⁴⁶⁾

1. 獨逸의 分斷은 첫째 제 2차 세계대전의 유산으로 동서간의 힘의 관계에서 형성되었다.

2. 獨逸의 分斷은 이데올로기적 분단이다. 武力에 의한 戰爭이 그 치자 그 자리에 찾아온 것이 이데올로기紛爭으로서, 世界 規模로 확대된 이데올로기 紛爭은 獨逸問題와 밀접하게 관련지어져 있어 DDR은 資本主義의 굴레로 부터 人間을 구원하고 階級없는 共產主義를 통하여 人間을 해방시키기 위해 世界革命을 追求하는 共產主義를 체제로 하고 있다.

3. BRD가 存在하는 한 美國과 서유럽의 우방국가들의 방위 지원이 있으며, 이러한 결속없이 BRD의 獨立은 不可能하다.

4. 分斷의 선위에는 獨逸 民族의 分斷을 象徵하는 '무자비한 國境線'이 있는데 그 國境線은 모든 유럽民族의 分斷일 뿐만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유럽공통의 文化의 分斷이 存在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위에서 具體적으로 西獨政府는 分斷이 항구적인 시련이 될 수 있다고 전제, 1) 西獨은 統一을 원하지만 장래 무력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며, 2) 獨逸統一을 위한 구체적條件을 다룰 때에는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할 것이며, 自由와 多元性과 民主主義에 대해서는 論難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自由와 多元性과 民主主義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3) 西獨은 世界를 증오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獨逸人의 一體感은 獨逸人이 世界에서 단결과 화해의 공간을 만들때 명예있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4) 統一의 힘은 自由로부터 成長하여야 되며 統一이 長期 目標일 지라도 젊은이들에서 獨逸民族의 分斷現實과 統一의 과업을 인식시키는 教育을 통해서 통일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5) 西獨은 現實에 굴복하여 統一을 기피하는 일도, 그리고 결코 統

一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合理的인 統一의 길을 가야 한다.

6) 西獨人은 獨逸人의 일부분만 西獨에서 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고,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조건으로 통일을 잊어서는 안되며 自由와 福祉가 缺乏된 獨逸民族의 다른 한부분을 잊어서도 안된다. 自由롭게 선출된 獨逸 한부분의 獨逸聯邦議會, Bonn이 分斷된 獨逸 한 國家의 수도임을 잊지 말고 統一에 대한 환상보다는 統一問題가 國際政治의 議題로 상정될 때를 準備하는 能力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基民黨의 콜수상은 1985年 6月 16日 다음과 같이 統一에 대한 그의 態度를 밝혔다.⁴⁷⁾ 무력포기와 법적인 의무의 이행은 獨逸政策에 必要하며, 유럽의 평화로운 질서란 틀속에서 自由롭게 達成하는 獨逸의 統一이란 目標은 바로 내일 達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서독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現實主義者로서 忍耐과 끈기를 가지고 이길을 가야지 정치적 환상으로 이 목표를 추구하면 유럽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준다. 우리들의 人間的인 고통을 덜어주는 努力과 平和的인 努力은 언제나 效果的이었다. BRD의 自由로운 民主主義 共同體와 大西洋 同盟에의 依存은 모순된 것이 아니며 불구대천의 원수이었던 프랑스인과 獨逸人은 화해를 하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獨逸問題는 주위의 모든 이웃 나라들과의 양해하에서만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들 앞에는 主權의 問題보다 유럽을 위한 自由의 問題, 東과 西의 分斷線이 重要한 問題로 앞에 놓여 있다.

2. 東獨 : 共產主義에 의한 統一

東獨을 지배하는 정당은 獨逸社會主義統一黨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 SED)이다. SED는 共產黨으로 동유럽 공산국가 가운데서 그 黨의 지도력은 강력하다.

SED는 전쟁중 모스크바에 망명했던 독일공산당의 최고간부 「울브리히트 그룹」에 의하여 1946년 4월 19-20일에 재건되었다. 당시 黨 中央委員會의 16人 가운데 단 두사람만이 戰時중 본국에서 반나치스 저항운동에 종사하였고 그 외는 모스크바로 망명하였다. 때문에 재건된 독일 공산당에서는 모스크바파가 그 주류를 형성하였다.

1947년 이래 SED는 마르크스-레닌주에 입각한 黨의 原則을 더욱 強調하였다. 1949년 1월 28일 黨大會에서 SED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투쟁정당으로서 노동자계급의 前衛임을 밝히고, 이 당만이 노동자 계급의 행동통일과 意思統一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黨의 조직은 치밀한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취하고 黨의 규율은 嚴하며 黨원의 사회주의적 의식은 黨의 原則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일치되어야 한다. 黨의 결정은 예외없이 모든 黨원에 유효성을 가지며, 의회, 정부 및 기타 행정조직에도 유효함으로써 SED는 실질적으로 동독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⁴⁸⁾

특히 울브리히트는 SED를 소련형의 불체비키당화 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土地改革, 産業國有化를 실시, 과거의 많은 사회민주당원을 체포하였다. 1950년의 제3차 당대회에서는 黨의 共同議長制를 폐지하고 書記長制를 설치, 울브리히트가 그 자리에 앉아 黨의 독재체제를

강화하였다. 울브리히트는 스탈린주의자였다. 다른 동구 사회주의국가에서는 反스탈린화 정책과 더불어 당의 지도부와 당관료들중 스탈린주의자들이 추방되고 당의 지도력이 동요되는 경험을 가졌으나 동독의 SED는 울브리히트의 강력한 독재체제 아래 비교적 안정된 길을 걸어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서독의 東方外交와 동서유럽의 긴장완화는 그를 궁지로 몰아 넣었다. 소련은 중소대립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리고 서방측의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서구와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으나, 울브리히트는 아러한 소련의 對西獨 宥和政策에 반대하여, 실각하고 말았다.

1971년 울브리히트 대신 그 자리에 호네커가 등장함으로써 동독의 스탈린적 독재체제는 막을 고하게 되고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데탕트외교로 전환하였으나, 國內政府에서는 기본적으로 울브리히트의 強硬路線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黨의 自由化는 그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近代 經濟學이나 기술혁신의 성과를 경제건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당의 지도부에도 경제 전문가가 정치국의 결정을 시행하고 정보처리, 조직공학, 전자공학 등에 의해서 모든 데이터가 處理되고 있다. 戰後 東獨은 막대한 賠償支拂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었다. 敗戰 獨逸에 대한 總額 200억달러 배상중 절반을 東獨이 소련에 대해 지불하여야 했다. 西獨이 이러한 배상조건이 없었던 것에 반해, 東獨에서는 스탈린에 의하여 嚴格한 배상정책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작한 東獨의 經濟建設은 서독에 비하여 뒤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戰爭 전 東獨은 또한 농업지대였다. 천연자원 부족으로 重工業發達이 늦어졌으나 오늘날 동독은 정밀

기계, 光學機械 등 종래 공업뿐 아니라 石油化學, 自動車 등 새로운 공업이 發達하여 동유럽의 제 1의 工業國일 뿐만 아니라 工業生産高에서도 세계 8위에 드는 선진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

東獨은 제 1차 5개년 계획(1951~1955), 제 2차 5개년 計劃(1956~1960)을 실시하였으나 도중에 失敗하였고, 제 1차 7개년 계획(1959~1965)도 중도에 失敗를 보자 1964년부터 제 2차 7개년 계획을 시작하였다. 경제에서의 失敗 원인은 소련형의 中央統制經濟의 과탄에 있었다. 이러한 정세 아래 1963년 「경제계획 및 경영의 신제도에 관한 지도방침」이 도입되며 利潤導入方式의 신경제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경제정책은 체코슬로바키아 등지에서는 정치적 自由化를 수반하였으나, 東獨의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화나, 정치적 개혁의 수반 없이 경제의 「自由化」 영역에만 머무르게 되었다. 동독 경제성공의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이런 새로운 경제정책이고 또다른 하나는 1961년 8월 구축한 동서 베를린 장벽이라 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하여 노동력의 상실을 막을수가 있었다.

그러나 공업생산성은 오늘날 서독에 비해 30% 낮다.⁴⁹⁾ 西獨에 비해 공업생산력, 소비생활수준의 뒤떨어짐은 동독체제의 統當性의 결여를 가져왔다. 이는 DDR의 창설 초기에 그 존립 자체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동독의 주민들은 그들의 국가를 늘 서독의 생활과 비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의 대부분은 BRD가 복지국가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란 사실을 인식하고 부러움과 선망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독을 여행한 동독인들과

의 대화에서 누구나 알 수 있다. 40여년 동안 이데올로기 속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들어 왔지만 생기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며 풍요속에서 생을 영위하는 같은 민족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들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들 체제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독 인구의 300여만이 DDR에 등을 돌림으로써 그들 국가에 대한 거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⁵⁰⁾

동독주민들의 동독 국가에 대한 正統性의 결여와 국가존재에 대한 거부는 더우기 制限된 主權의 행사로 인해 더욱 심각한 問題를 야기하고 있다.

1955년 초 소련은 유럽에서 그들의 힘의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독일에 대한 정치적·군사적인 중립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소련의 시도는 가혹한 점령정책으로 실패하였다. 소련의 동독에 대한 정책은 친소 정책노선을 추종하는 울브리히트의 지배를 약화시켰고, 또 소련이 동독에서 실시한 배상정책은 동독 인민들의 반소감정을 야기하였다. 종전이후부터 1953년 까지 소련은 동독으로 부터 6백 60억 마르크를 배상금으로 거두어 갔다.⁵¹⁾ 소련정책으로 인한 동독 주민들의 反蘇감정은 물론 親蘇노선의 동독정권에 대한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서 불신을 초래하였다. 1954년 3월 소련은 DDR과의 관계에서 다른 주권국가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등한 관계유지를 선언하고 DDR과의 安全保障에 대한 상호협력과 더불어 DDR의 主權制限을 시사하였다.⁵²⁾ 1955년 9월 소련은 BRD와의 外交關係를 수립한 이후 DDR과 국교관계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소련은 DDR의 國內·國外에서 완전한 主權의 유지보장을 밝혔으나, 독일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소련의 지속적인 의무를 명백히 하였다. 동독은 1949년 설립된 코메콘(COMECON, 經濟相互援助會議)에 1950년에 가맹한 뒤 경제적으로 동방블럭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는가 하면 NATO에 대항, 소련을 중심으로한 동구권의 결속확보를 위해 1955년 창설된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의 편입으로 소련과의 관계는 더욱 굳어졌다. 더우기 DDR은 1974년에 소련과의 一體化를 강조하면서 소련모델의 영향이 짙은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면서 부터 소련과 뗄 수 없는 同盟關係에 들어 가게 되었으며, 社會主義 國家共同體에 있어서 하나의 불가분의 구성요소가 되었다. 즉 DDR은 소련과의 관계에서 제한된 主權을 행사하는 파트너 노릇을 하고 있다. 더우기 DDR은 1968년 헌법의 國家規定에서 民族的 一體性의 강조가 퇴색하였는가 하면 1974년 헌법개정에서도 독일민족의 一體性을 부정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DDR체제의 正統성과 民族의 一體性의 결여, DDR 국민들에 의한 동독국가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主權의 제한은 주로 동독을 지배하여 오면서 한번도 그 성향을 알 수 없는 SED의 성격과 東獨에 대한 소련의 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다. SED는 다른 동구공산권 국가들 보다는 가장 강력한 정도로 소련군대의 주둔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련 또한 DDR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경제, 정치, 기술, 군사적으로 DDR이 강하여지면 강하여 질수록 크레믈린에게는 DDR이 더욱 중요하다.

1950년 말 이후 DDR은 그 역할에 있어서 소련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소련은 DDR에 있어서 최대의 수출상대국이고 DDR은 소련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 되었으며, 1982년 소련은 全體 貿易量의 10% 이상을 DDR과 거래하였다. DDR에 있어서도 소련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며 그 중요성은 절대적으로 크다.

軍事的 領域에서도 DDR은 소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소련은 自國 외의 세력권 중에서 DDR에 가장 많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DDR에 소련군 20개 사단 38만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DDR 국가인민군 17만 가량의 병력이 바르샤바 조약군에 통합되어 있다. 또 DDR 군대는 동구의 軍事同盟에서 소련이 가장 信賴할 수 있는 軍隊에 속한다. DDR 병력을 보면 1981년 현재로 육군 113,000명 공군 38,000명, 해군 16,000명 경계선 근무병 46,000명 총 213,000명으로 인구 1천 674만의 1.2%에 해당한다. 동원병력규모는 518,000명으로 인구의 2.8%이며, 기타 국가안전, 경찰병은 37,5000명이고, 병역의무기간은 18개월이다.

경제적·군사적으로 강력한 기반위에서 대내적인 지배체제를 굳힌 DDR은 同盟에 대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1970년대 초 소련이 서방측과 데탕트 정책을 실시하고 BRD와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하려 할 때, 소련은 동독의 정치전략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전략문제에 있어서 DDR과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울브리히트는 獨逸과 유럽정책에 있어서 소련의 大國利益에 대하여 DDR 自國의 利益을 방위하려 하였다. 동시에 SED는 소련의 경험에 의거하지 않은 자체

의 사회·국가이론을 전개하여 이데올로기적 해방을 시도하였다. 1971년 3월 소련 공산당 24차 당대회에서 울브리히트는 레닌과 그의 개인적인 친분을 시사하면서 울브리히트 정책에 대한 소련의 비난을 제거하려 하였다.⁵³⁾ 1971년 5월에는 바로 울브리히트 자리에 독일정책에 있어서 소련의 노선을 동조하는 호네커가 등장하여 DDR의 발전이 다른 社會主義 國家의 모델로서 적당하다는 식의 동독의 발전 자랑은 삼가했다. 호네커는 소련의 외교정책에 대한 DDR의 영향력이 비록 독일문제에서 일망정 극히 제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한 소련이 DDR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 소련은 유럽의 북쪽 측면의 안전을 다지기 위하여 안정된 DDR을 필요로 하고, DDR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련군대의 동독주둔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다. 소련과 DDR의 국민경제는 서로 보완하고, 또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利益의 相互關係가 형성되었고 이것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DDR은 그들의 동맹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공동체의 對西方政策에 있어서도 중요성과 행동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다.

1973년 6월 기본조약 효력발생으로 DDR은 BRD로부터 국가로서 인정을 얻었고, 1973년 9월 UN에 가입하였으며, 뒤이어 세계적인 규모로 외교관계를 형성함으로써 DDR은 對西方政策에서 行動領域을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外交目標에 있어서도 일부의 변경을 가져왔다. 그동안 DDR의 외교 목표는 다만 外交的인 인정을 획득하

동독 무역의 지역구조(%)

	5년동안의 평균			5년동안의 평균		
	1971 -1975	1976 -1980	1982	1971 -1975	1976 -1980	1982
	수 입			수 출		
사회주의국가	65.0	65.9	68.5	72.7	72.6	63.8
COMECON 국가	62.1	62.8	65.5	68.9	68.8	60.8
소련	33.9	34.9	40.3	36.5	35.5	35.9
체코	8.6	7.8	7.5	9.8	9.5	6.9
폴란드	7.4	7.2	4.5	9.3	8.4	5.4
헝가리	5.3	5.4	5.2	5.4	6.4	5.4
그외사회주의국가	2.9	3.2	3.0	3.8	3.8	3.0
기타다른나라	35.0	34.0	31.5	27.3	27.5	36.2
서방공업국가	30.9	29.1	27.3	23.2	22.0	29.1
서독	9.5	8.1	8.8	9.4	8.6	8.5
개발도상국	4.1	4.9	4.2	4.1	5.5	7.1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ndbuch DDR -
Wirtschaft, Hamburg 1984, p.398.

東獨의 對西方側累積債務

단위 : 10 억달러

	1979년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① 對西方側은행총채무	7.72	9.46	10.10	8.52	8.15
② 서측은행예치금	1.90	2.04	2.13	6.88	1.82
③ 對西方側은행純債務①-②	5.82	7.42	7.97	6.65	6.33
④ 兩獨間貿易에 의한累積赤字	2.13	2.15	1.64	1.54	1.79
⑤ 합계 ③+④	7.95	9.57	9.61	8.17	8.12

日本貿易振興會, 東獨, 東京, 1984, p.45.

는 데 집중되어 왔으나, 이제는 소련과 공동으로,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동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국제적인 조건을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집중된 것이다. 외교행동의 주요영역이 사회주의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BRD 외에 서유럽과 개발도상국에까지 넓혀졌기 때문이다. DDR은 서구공산당과도 관계를 개선하여 1983년 4월에는 동베를린에서 「평화와 진보를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아래 카알 마르크스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DDR은 소련의 평화선전을 결정적으로 지지하고, 서유럽의 약화와 서유럽의 미국으로부터의 분리에 외교의 우선을 두고 있다.

소련의 세력권 내에서 DDR은 주권의 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임과 동시에, 소련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체의 성격을 가진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자기의 경계선내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동독에는 분단된 독일민족의 일부분이 살고 있고 동독의 대부분 주민들은 BRD를 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DDR의 이러한 상황은 기본조약체결 이후 DDR로 하여금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외교적 행동양식을 결과케 하였다. BRD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경제·기술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즉, 서독과의 왕래가 그들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경제적·기술적 이익을 취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동방블럭에 통합을 강조하여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통합과 협력을 지향하는 독일국가로, 대내적으로는 자주적인 평등한 주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DDR의 태도는 80년대 이후 소련의 일반외교 노선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즉 東西關係가 새로운 冷戰體制로 들어오면서 DDR의 서독과의 관계 강화는 소련측으로 부터 일방적인 데탕트추구 노력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 동서독의 화해는 서독의 우수한 경제력과 기술이 바탕이 되어 추진되어 왔고 서독은 동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과 양독의 번영, 분단선에서 장벽의 완화, 동서간의 지속적인 긴장완화를 강조하여 왔다. 이에 대해 소련은 동독의 안정 파괴를 두려워 하였고 그 파급효과가 동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 하였다. 그것은 1984년 가을의 일이었다. 호네커는 엘베강일대 국경분쟁의 해결, 東베를린과 Bonn에 주재하고 있는 양독외교 대표부의 대사급 격상등의 문제로 9월 26~29일 서독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소련의 끈질긴 압력으로 취소되고 말았다. 소련은 거대한 압력으로 호네커의 서독방문을 취소케 함으로써 동구 동맹국의 외교정책의 노선은 소련에 달려 있으며 독일문제 해결의 열쇠는 모스크바에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⁵⁴⁾

이제 DDR의 독일통일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DR은 多元主義的으로 統一된 獨逸이라는 BRD의 통일 비전을 거부한다. 독일땅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생존은 뉘 수 없는 요소라 주장, 독일분단의 극복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디까지나 統一된 社會主義 國家 독일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호네커는 늘 언젠가 서독에서도 사회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對外關係에 있어서는 「소련과의 一體化」를 강조하면서 對西獨外交에서는 어디까지나 「政經分離의 原則」을 고수하고 있다.

V. 2000 年代 東西獨關係

1. 東西對立 構造속에서의 兩獨

1945년 미국과 소련은 세계를 東과 西로 구분하여 각 진영을 이끄는 초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은 태평양 세력임과 동시에 대서양 세력이고, 소련은 아시아 세력임과 동시에 유럽세력이다. 이 두세력은 서쪽에서 독일의 분단선에서 대치하고, 그 독일의 분단선은 유럽을 분단하였다. 이 두 초강대국은 그들의 이익, 원칙, 규범, 전략이 서로 일치할 수 없는 목표설정의 상황속에서 서로 다른 행위체계를 가지고 대립하게 되었다.

현재 독일을 분단선으로 대치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은 유럽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핵무기 배치로 有事時 유럽은 위험성이 높은 즉발지대에 속한다. 大陸間 탄도탄은 미국과 소련 본국에 있으나 전진 배치된 중거리 핵무기는 소련의 경우 전략 핵미사일 SS 20 260기, SS4 및 SS5 248기가 유럽에 배치되어 있다. SS20은 3개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으며 4,800km를 날아 유럽의 미사일 기지는 물론 시가지를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다. 그러므로 NATO군의 어떤 군사시설도 SS20의 선제공격이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항하며 NATO는 1979년 12월 12일 브뤼셀에서 1983년부터 퍼싱 II와 크루즈 미사일 배치를 결정 464기의 크루즈 미사일, 108기의 퍼싱 II 미사일을 서독,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에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퍼싱 II 미사일은 사정거리 1,600km로 60~4백킬로톤

의 핵탄두를 장치할 수 있다. 명중율은 99%이며 우랄산맥까지 날을 수 있고, 동구권, 유라시아의 중요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또 소련은 SS 21 短距離 彈導彈을 東獨 사단에 배치하고 정밀도 높은 900 km의 SS 22를 東獨에 배치하고 있다.⁵⁵⁾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자유와 억압, 인권·언론자유와 집단적 규율을 숭상하는 전혀 다른 행위 지향을 가진 두 거대한 세력사이에 유럽은 분단된채 無力하게 남아 있다. 이 속에서 獨逸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同盟體制로 나누어져 獨逸의 概念은 분단의 운명으로 特徵지어 지게 되었다. 終戰은 占領地域의 분할, 동서분쟁에 따른 유럽의 분단, 獨逸의 분단 그리고 동서진영의 분단을 초래하였다. 이에 BRD는 서방진영의 東쪽 경계선이 되었고, DDR은 東歐地域의 경계선이 되었다. 그 結果, 獨逸의 분열이 곧 유럽의 분열이 되었다.

그러므로 獨逸의 運命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運命과 같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運命의 解決은 獨逸 運命의 解決을 어렵게 되어 놓음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解決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獨逸에 大國의 利害가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獨逸은 각각 서로 다른 행위체제, 전략목표를 가진 軍事 同盟과 經濟機構에 加入되어 있다.

西獨은 NATO에 加入되어 있고 東獨은 WP에 加入되어 있다. WP는 大規模의 戰略核戰力 中·短距離의 核戰力 및 거대한 通商戰力을 유지하고 있으며, WP의 軍事戰略은 敵領土內에 광범위한 침투를 추구, 기습의 요소와 신속한 공격작전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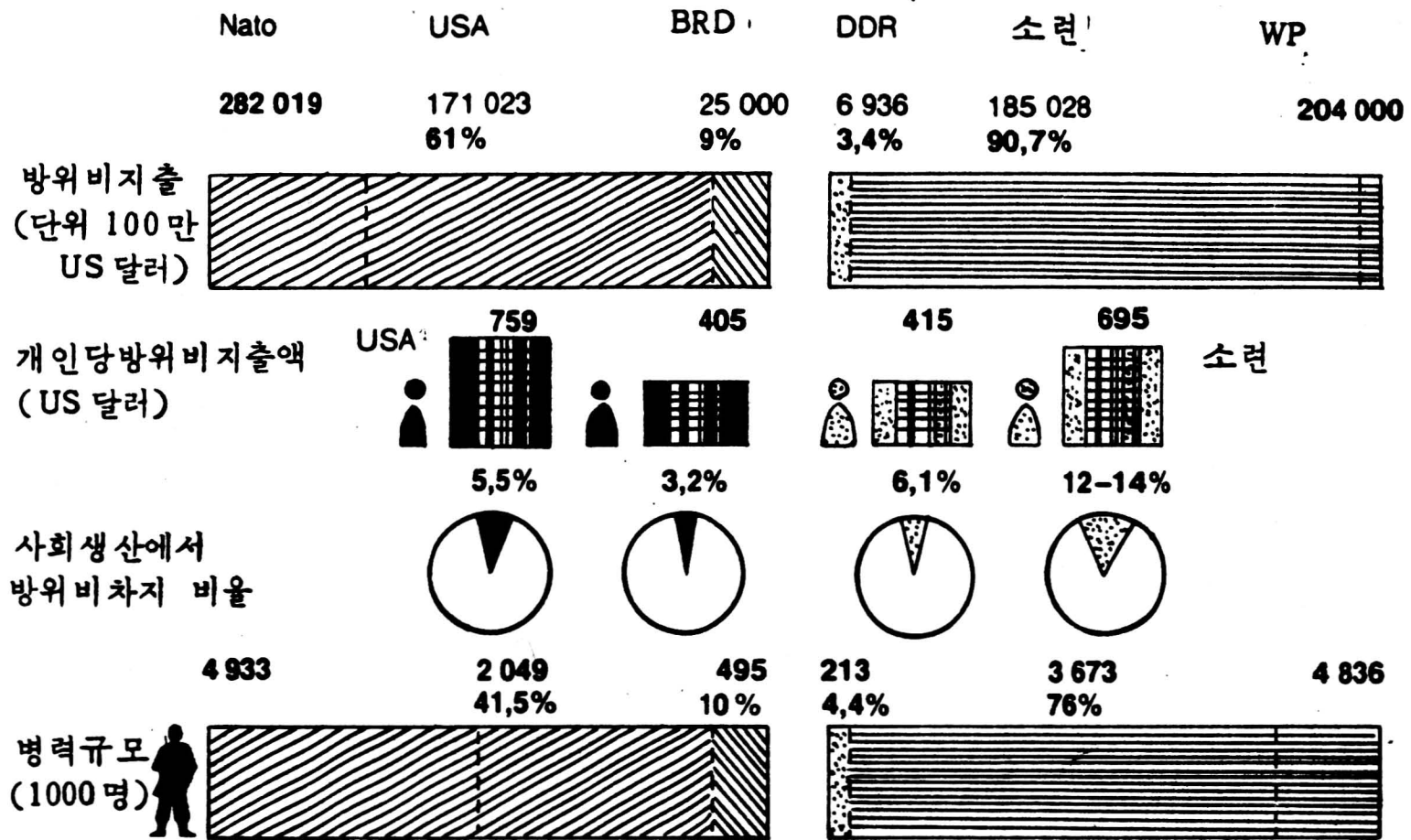
이러한 東西對決의 힘의 구조속에서 東西獨은 각각의 同盟體制 속에서 가장 重要하고 強力한 同盟國이 되고 있다. 즉 DDR은 WP同盟의 盟主 소련에 주권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임과 同時에 軍事的·經濟的·政治的으로 가장 重要的 파트너이다. 이에 대하여 西獨은 美國을 盟主로한 NATO에서 가장 強力한 同盟國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東獨없는 WP나 COMECON은 그 存在에 의문을 던지고 西獨없는 NATO나 EC는 그 存在에 의문을 던지게 된다. 즉 두 獨逸은 美國·英國·프랑스를 주축으로 하는 NATO 및 EC의 집단 同盟體와, 소련, 폴란드, 체코등을 축으로 하는 WP와 COMECON의 국제환경 속에 얽혀져 東西間의 對立은 이러한 집단안보 體制의 세력균형 속에서 安定을 유지하고 있으며 兩獨은 이 세력균형의 받침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묘한 東西의 힘의 균형 속에서 獨逸의 어떠한 움직임도 두 초강대국은 물론 주변 유럽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獨逸은 두 초대강국으로부터 獨自的으로 獨立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에 處해 있다.

예를 들자면 1984년 호네커의 西獨 방문예정을 통한 東西獨 接近努力에 대하여 소련은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웠다. 소련은 西獨의 對東獨 接近을 東歐의 분열을 노리는 저의의 결과라 지적하고 東西獨의 統一은 얄타체제의 와해, 즉 獨逸領土의 원상복구를 노리는 것이며 그것은 또 하나의 世界大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날카로운 東西對決場의 한 가운데서 결국 獨逸의 統一努力은 이러한 의미에서 유럽에 平和를 어지럽게 할 뿐이며, 獨逸歷史는 獨逸사

軍事的 同盟體制에 있어서 兩獨의 位置(1981)



Zaulen-Spiegel ,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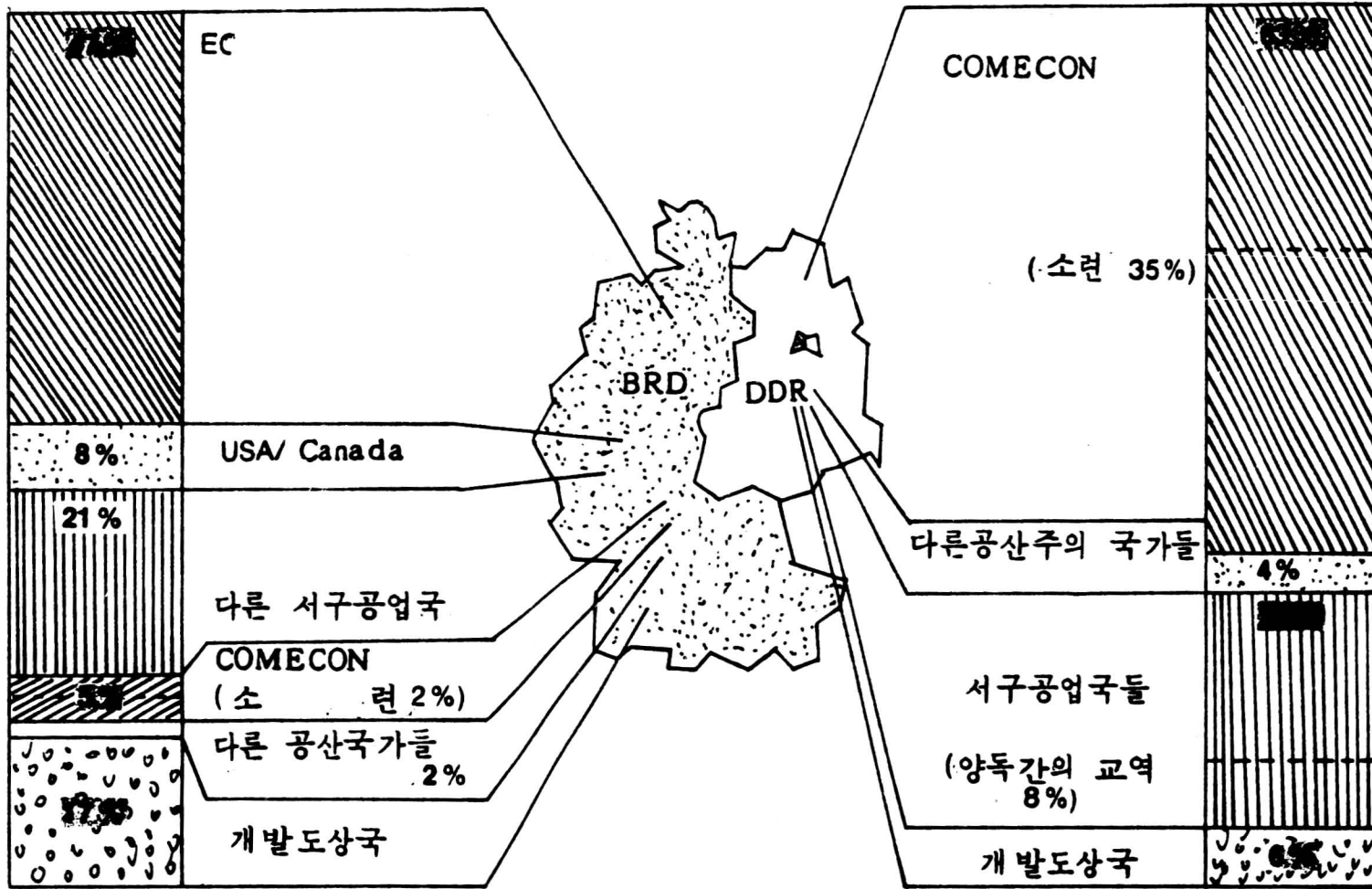
람 자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獨逸人の 獨自的인 努力만
으로 解決될 問題가 아니다.

그러므로 獨逸統一의 國際的 전제조건은,

- 1) 알타체제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미소관계의 변화
- 2) 유럽분단의 극복
- 3) 東西間의 合意와 주변국가의 同意이다.

일찌기 후르시초프는 美國의 닉슨과 모스크바 회견시 「솔직이 말

1980 년 현재 兩獨의 貿易파트너



Zaulen-Spiegel, p.29

합시다. 미국과 소련 두 나라를 포함하여 獨逸周邊國들은 과연 어느 나라가 獨逸의 統一을 願합니까? 獨逸의 재통합을 바라는 것은 獨逸 뿐입니다。」라고 털어 놓은 적이 있다.

스탈린은 1944년 4월 유고슬라비아 어느 정치가와의 會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이 戰爭은 이전의 모든 戰爭과는 다릅니다. 한 領域을 정복한 사람은 그의 군대가 있는 곳까지 그 地域에서 그의

社會體制를 강요합니다」.⁵⁶⁾ 스탈린의 이 말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오늘까지 獨逸問題에 決定的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소련은 그들이 占領한 모든 地域에서 그들의 體制를 強要하여 이에 도전은 제 2차 대전의 국제질서인 알타體制에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1970년 브란트 수상은 슈토프 東獨閣僚 評의회 의장을 만나러 가기전 「우리 獨逸 民族外에는 두개의 세력이 합해진다는 우발성에 대하여 열의를 가져 주는 사람이 이 세계에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자. 獨逸의 統一은 하나의 찬스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冷嚴한 현실을 인정하는 말을 남겼다. 토마스 만의 아들인 역사가 골로만은 獨逸과 프랑스의 우호관계의 비밀은 獨逸分斷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東西獨間의 政治的 接近이 中歐에서 東西關係의 對立과 경쟁 질서를 무력하게 만드는 要因으로 作用하게 된다면, 알타體制의 주역인 美國과 소련은 그들의 世界的인 安保戰略에 일치하지 않은 한 달갑잖은 사태진전으로 받아 들일 것이다. 同盟國의 德탕트는 大國의 지도권이 흔들리지 않은 範圍에서 許容하려 한다. 다른 한편 오늘날 소련은 서구의 선진 과학기술을 導入하고 機械·設備의 輸入을 重要視하며 서구 各國은 소련에 機械와 裝備를 輸出하고 있다. 워싱턴은 서구의 科學技術이 모스크바의 군비와 技術을 완벽하게 하여 서방측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소련은 대서구 관계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NATO의 회원국들은 동구제국과의 關係改善에 힘쓰고 있다. 반대로 소련은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집안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동구와 서구 국가들의 상호관계 개선의 努力이 어떤 意味에서는 美國과 소련을 中心으로한 第2次 大戰의 전승주축세력들에 의한 戰後 世界공동관리 질서인 얄타체제의 變화의 組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世界는 아직 軍事的인 面에서 美國과 소련의 兩極體制 狀況 아래 놓여 있다. 人類가 未來를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美國과 소련의 選擇에 맡겨져 있다. 여기서 유럽은 이 두 세력을 中心으로 아직도 政治·經濟 體制에서 分斷되어 있고, 同盟體制로 分斷되어 있다. 東과 西의 지도세력에 加担하여 있으면서 일단 戰爭이 터질 경우 共同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獨逸 統一의 國際환경 條件의 다른 하나는 유럽의 分斷 극복이다. 현재 처하고 있는 유럽인들의 共同의 위기의식은 최근 유럽인들로 하여금 유럽인의 共同적인 歷史的·文化的 實體의 意識을 재확인하려는 努力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유럽인들의 問題意識은 ① 유럽은 어느정도 強요된 狀態에 있으며, ② 유럽은 어느정도 機會를 가지며, ③ 유럽인은 어느 정도 자신의 運命에 影響을 줄 수 있는가에 集中되고 있다.⁵⁷⁾ 이러한 그들의 問題意識은 「유럽의 特性」과, 「유럽의 強제상황」 그리고 「유럽의 機會」로 集約된다. 유럽인들의 인식에서 유럽은 地理的 概念보다는 歷史的·文化的 概念이다. 서구문명의 發祥地로서 유럽은 近代세계의 모든 업적을 가져오게 하였음과 동시에 또 모든 파괴적인 위험을 現在 같이 안고 있다. 유럽은 일찌기 기독교 아래 形成되었고 精神적으로 늘 統一體를 形成하여 오면서도 유럽 내에서 각 시대에 걸쳐 늘 투쟁과 협력의 있었다. 그러나 각 國民의 경쟁이 極단의 상황까지

지 치달았을 때 유럽은 자기 파괴를 경험하였다. 그들에 있어서 人間의 자유영역의 확대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가치추구와 연결되어 사회변혁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리하여 유럽문화의 근저에 있는 기본적인 유럽인의 가치표상은 세계질서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이성을 숭상하고 불가침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여 왔다. 그것은 人權思想, 계몽사상, 자유와 평등의 요구로 집약되고 그 기반 위에서 현대의 과학과 학문이 이룩되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신생 국가로 유럽에서 발생한 서구문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大西洋勢力임과 동시에 太平洋勢力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政治·經濟·社會的 제도는 유럽의 제도에서 나와 미국이란 땅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구문명에 속한다기 보다는 비잔틴에 의하여 발전된 政·教合一主義의 전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개인을 중시하고 인권을 중시하고 서구제도와는 전혀 다르게 발전하였다. 뒤에 피터大帝때 서구의 기술과 학문을 도입하였고 서구사상은 上流社會에서만 도입되었다. 유럽에 기원을 두고 있는 民主主義와 社會主義 政治思想 가운데서 러시아는 西歐人들이 異教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를 공식적인 世界觀으로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러시아化하여 개인인권의 존중이라고 하는 서구의 기본가치를 박탈한 억압적인 제도를 강요하고 있다. 권력을 頂點에 집중시켜 일반민중을 억압하는 소련형의 官僚는 서구인의 가치에 상반된다.

그리하여 미국은 서구문명의 같은 줄기로써 서구인에게 理解되고, 소련은 현대에 여러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文化的 核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된다. 文化的 同一性은 소련국경까지만 그 경계를 긋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東獨은 文化的으로 유럽에 소속시킨다. 현실적으로 동구의 이 나라들이 소련의 영향권에 있긴 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산물도 아니고, 또 그들 선택의 결과도 아닌 분단된 유럽의 강제상황인 것이다. 東·西 데탕트 시기에 그런 강제상황에 기회가 엿보였을 때 서유럽과 동유럽은 경제교류를 서로 급진전시켰으며, 오늘날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소련이라는 「盟主」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성장을 위해 서구의 기계와 기술도입에 적극적이고 서방 기업의 자본투자를 환영하는 현상은 그 문화적 공통성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럽 민족국가간의 대결이 그들 스스로 파국을 초래하여 그 결과 제 2차 대전후에는 세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상실해 버린 유럽은 그들의 안전보장을 스스로 미국에 의존하여 미국의 同盟國이 되었고, 東歐는 강제로 소련의 同盟國이 되었다. 東歐는 어쩔 수 없이 소련의 同盟國이 되었으므로 외교정책과 방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소련의 권 통제 아래 있다. 분단된 유럽은 그 경계선에 두 초강대국이 核무기를 배치하여, 전략핵의 위협과 대결의 均衡을 통해 40년간 평화를 보장하여 왔으나, 이러한 조건들은 유럽의 미래를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유럽의 좌표속에서 유럽이 그들의 운명을 開拓하고 살아 남을 기회는 ① 유럽의 정치적 독자성의 강화, ② 同盟內에서의 活動의 自由와 영향력의 회복에서 찾고 있다. 그 최초의 움직임은 1966년 드골 대통령에 의한 프랑스군의 NATO사령부로부터의 탈퇴와 東歐와의 관계 改善이었다. 그리고 데탕트가 지배하던 때 東西歐 國家들은 經

濟交流, 人的交流를 통하여 그들 獨自性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과 폴란드 사태로 東西間에 금이 가자 유럽인들의 분단극복 가능성을 향한 노력은 다시 한번 좌절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번영을 되찾은 유럽은 미국과 소련의 세계정치의 주도권 아래서 그들의 政治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허덕이고 있다.

世界的 政治, 經濟, 文化의 주무대가 大西洋에서 太平洋으로 옮겨감으로 인한 유럽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유럽이 유럽인의 意思와 무관하게 유럽의 독자성 없이, 유럽인의 자유없이, 발전이 처진 위성국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⁵⁸⁾ 서유럽국가들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한계상황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첫째는 인구감소 경향으로 미래 국제사회에서 유럽제국의 自決權이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두번째는 전후 서유럽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미·소영향권에 대한 3도의 지대를 설립코자 썩튼 서구통합 理念의 퇴조로서, 서유럽 국민은 그들의 自由를 지키기 위하여 서구 社會와 民主主義 價値를 위해 싸워야 하는데 전후세대의 평화주의적 성향은 미래에 유럽의 굴종의 길을 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經濟·社會的 問題로서 서유럽은 미국에 비해 첨단기술분야에서 뒤떨어지고, 다른 경쟁 아시아 國家들도 경직된 관료적 경제운용 방식을 떠나 기업임금과 생산가의 유연한 대책을 통해 技術의 進歩를 꾀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인은 아시아인에 비해 일을 적게 한다는 점이다. 유럽인이 유럽문제에 있어서 주체가 되며 다음 세계무대가 大西洋 저편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방지하여 진정한 유럽시민의 기반을

다지려면, 우선 경제적인면에서 서구제국의 자본과 기술을 갈망하고 있는 동구제국과의 관계에서 타개해야 되는바 이에는 미국과 서구동맹국 사이에 많은 견해차이가 있다. 미국은 서구제국이 소련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서유럽국가들을 향하여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을 왜 世界的인 戰略의 차원에서 볼 줄 모르고 유럽적인 시각에서만 보려하냐고 나무란다.

아프카니스탄 사태이후 미국과 소련은 인류전체를 파멸시키고도 남을 무서운 군비경쟁을 지속하여 새로운 冷戰關係가 형성됨으로서 유럽의 자립적인 운동이나 유럽의 一體性を 회복하려는 기대는 어두운 그늘에 드리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으로서는 당면의 국제긴장을 극복하는 것이 그들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 東西間의 데탕트가 되살아 나서 戰略兵器競爭을 규제하고 超強大國間의 직접 군사 충돌로 인한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유럽의 安全保障上의 이익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동서간의 긴장이 격화되면, 유럽에서는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장치가 풀리는 것에 해당함으로 유럽인은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에 사활적인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소련의 압력이 가중되어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과 소련의 세력과 핵이 결집된 유럽은 兩強大國의 「主戰場」이 될 것이라는 의식이 유럽인의 深層에 자리하고 있다. 유럽인은 兩強大國家에 유럽의 運命을 맡길 수 있을까. 또 독일내에는 독일이 미국과 소련의 代理戰 核戰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소련과 동구사회에서는 黨의 指導部 가운데 혁명세대와 기

술세대의 항쟁이 보이고 있다.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유연하고 합리적인 발상을 특징으로 하는 테크너크라트들의 비중이 커가고 있다. 테크너크라트들은 經濟에 있어서 市場의 機能을 중시하고 혁명보다 經濟開發에 政策의 우선을 든다. 1985년 3월 소련 권력의 정상에 오른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도 테크너크라트에 속하는 지도자로서 그의 政治的 과제는 그동안 軍事費 支出로 희생당한 소련국민의 경제생활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⁵⁹⁾ 즉 소련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向上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만일 고르바초프가 우선적으로 이러한 經濟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면 소련에서 社會主義 經濟體制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어 그 체제기반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소련에 있어서 미국과의 무제한한 군비경쟁은 경제위기를 그만큼 앞당기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세력으로서의 야심을 포기해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東西가 군비증강을 제한할 수 있는 대화의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들의 경제구조를 전환·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⁶⁰⁾

이와 관련하여 소련은 6년만에 1985년 11월 19일~20일 이틀 동안 제네바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에서 東西대당트와 군축에 관심을 기울이므로써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약속하였다. 이 정상회담은 어떤 구체적인 결실을 가져오지는 못하였지만 양국정상은 체제문제와 국제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화를 마련하는 계기모색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양국의

정상회담은 「和解의 出發」 「第2의 데탕트의 전기」로 받아들여질 정도였다.

데탕트에 死活的利益이 걸린 유럽각국의 여론은 이를 크게 환영하고, 특히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은 11월 21일 TV회견에서 「미소정상 회담결과로 보아 호네커의 서독방문이 매우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⁶¹⁾고 말함으로써東西 데탕트가 유럽과 서독에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 서독은 양독관계의 이정표가 될, 호네커의 서독 고향방문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소련·동구사회의 지도부가 태크너크래트化 하여 경제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그들 사회가 민주化되고 개방화되면,東西간의 차이가 없어져 유럽이 지향하는 가치가 부활되고 자연히 정치적 문제도 해결되어, 유럽의 일체성의 회복 유럽분단 극복, 독일분단의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世紀를 單位로 하는 長期的인 전망에 속하고,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數十年 單位의 幅에서는 工業化, 市場經濟化가 반드시 政治的 民主化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화된 스탈린주의」라는 말과 같이 「스탈린주의」는 공산주의 社會에서 現代의 새로운 관료제 시스템의 安全裝置가 되기도 한다. 이는 兩獨關係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유럽분단의 극복노력은 미소 兩 超強大國의 關係와 얽혀져 있으며, 獨逸問題에 대한東西合意와 주변국가들의 동의는 데탕트 外交 및 상호교류 내지 교역의 획기적 진척이라는 불가분의 변수와

그것이 미치는 장기적인 변화에 의해 좌우되는바, 이런 요소들은 모두 상호의존적인 關係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 2000 年代 東西獨 共存類型

기본조약 체결을 계기로한 兩獨間의 실질적인 發展은 戰後 現狀을 안정시켰고 正常化하였다. 人的, 物的 그리고 文化的 交流의 強化와 相互關係의 協力으로 인해 기본조약 체결 이전에 산발적으로 있었던 再統一에 대한 수사학적 표현이 사라졌다. 앞으로 상당한 장래까지 동독과 서독사이의 협력관계는 더욱 발전·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한다. 더불어 기본조약 체결로 두 獨逸 사이의 분쟁의 요소를 모든 대화장치속에서 여과시킴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어떤 사건으로 인한 현상변경 사태가 전체 유럽 내지 두 강대국 사이의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제거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국이나 주변국들의 이익이나 전략을 해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서독과 동독사이의 협력과 대화정책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사실 양독관계의 正常化 노력은 독일분단의 극복의 요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바이쯔재커 대통령도 이와 관련하여 「분단상태의 극복은 국가의 재통일과 자동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⁶²⁾

그러나 현재로 보아서 인적·물적·문화적 상호교류는 독일분단을 고통을 해소시키는 양국관계의 정상화 과정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DDR체제의 自由化가 獨逸問題를 풀어 나가는

데 중요한 전제라는 입장에서 볼때, 문제는 이러한 상호관계의 개선과 협력의 강화가 공산주의 정권이 지배하는 DDR 과 어느정도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며, 호네커와 그의 정치국이 타협의지의 한계를 어디에 놓겠느냐는 것이다. DDR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기본조약체결 이후 경험은 이를 명백히 보여 주었다. 그래서 쭌리히 짜이통의 Bonn 특파원인 라인하르트 마이어 (Reinhard Meier) 박사는 DDR의 장래 모델을 헝가리에서 찾아 그 유형의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⁶³⁾

헝가리는 1956년 혁명좌절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소련 세력범위내에서 카다르 (János Kádár) 정권 아래 가장 자유로운 체제를 누리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헝가리 국민들은 오늘날 동구권내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풍성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동구권내에서 다른 어떤 공산국가 계획경제 보다도 개인의 이니시어티브를 강조하는, 즉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메카니즘을 도입하여 실시한 經濟的 성공 때문이다.⁶⁴⁾ 政治的으로도 동구상태와 비교해 볼때, 政治的 排判의 한계가 그어진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어느정도의 관용이 許容된 정신적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헝가리체제를 소련체제와 좀 다른 형태로 보고 있다. 그러면 소련체제의 定型은 어떠한 것인가? 정치적 엘리트가 당을 조직하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으며, 다른 社會的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권력을 강력하게 장악한다는 목표는 그 권력의 正統性이나, 社會的 정의, 업적, 능력, 자본형성, 경제적 합리성 보다 중요하다. 당의 권력독점을 위협하는 어떠한 요구도

억압으로 대처한다.⁶⁵⁾

헝가리의 카다르체제는 소련형으로 기능하는 공산체제 인데도 독특한 공산주의체제로서 지속하고 있어 서구인들은 이를 「카다르 모델」 또는 「카다르化」한 공산체제로 부르고 있다. 카다르는 사회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정치적 목표를 설정, 이에 따라 改革戰略을 실시하고 있다. 대중의 요구에 응함으로서 인기를 유지하고 개방성과 폐쇄성의 다양성을 적당하게 이용한다.⁶⁶⁾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조치를 취한다. 카다르 체제의 기본은 다음 네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1. 카다르 체제는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모스크바가 제시한 제한조건을 받아들이고 모스크바 외교노선과 일치하게 행동한다.

2. 1956년 혁명 좌절이후 黨의 權力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혁명시 대중의 요구인 자주에 대한 요구를 탄압함으로서 당은 崩壞直前에 서 있었다. 1956년 9월과 12월 사이에 1948년 결성된 헝가리 노동자 당의 당원 수는 900,000명에서 30,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뒤 헝가리 노동자 정당은 일반 국민의 의사와 동의를 신중하게 받아 드리게 되었고, 당도 헝가리 국민도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참가를 하여야 된다는 침묵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3. 1960년대 후반에 헝가리의 공산당은 당의 독점적인 구조가 현대사회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것은 多元主義에 대한 인식으로 社會에는 利益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社會的 단체들의 다른 형태의 경쟁에서 그들의 利益을 表出하는 것을 보장하고 黨의 힘에 의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였다. 이러

한 체제의 비밀은 정치가들에게 이해와 관용을 촉구하였다.

4. 카다르의 개인적 역할로서 그는 다른 동구 공산권 지도자들과 같은 이기주의자도 아니고, 전제주의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카다르는 제 1인자이면서 父性을 가진, 그리고 인간적인 政治家로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개인적인 권위의 集積은 카다르시스템을 특징짓고 있다.

헝가리 사회입장으로 보면 카다르체제는 모든 社會的 집단사이의 어떤 협의아래 기초해 있다. 우선 헝가리 인텔리들을 그들의 技術的인 지식의 이용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자유를 보장해주며 50年代에 비하여 政治的 충성을 강요하지 않고, 권력의 외부와의 접촉 그리고 물질적인 충족에의 길을 트여줌으로써 體制內에 吸收하는 데 성공하였다. 노동자들 問題에 있어서 당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 최소한 더 못해졌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완전 고용 대책으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나아가서 농민들에게 시장에 따른 생산, 그리고 수익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의 수입을 높였다. 1968년부터 헝가리정부는 「新經濟機構」라고 하는 經濟自由化를 실시 혁명시 인기를 잃은 카다르 제 1서기에 대한 市民의 평가를 높였다. 헝가리는 다른 동구 어떤 나라보다도 경제자유화 정책을 실시, 1965년 1월 이후는 기업의 固定資本 및 流動資本에 대하여 5%의 利子を 許容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社會主義 國家의 經濟的 非能率을 구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었다. 그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가 행하여졌다.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가의 경제에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전제로한 자본주의 시

장경제 메카니즘을 이용. 다른 동구제국의 자유화정책을 앞섰다. 종래 국가가 행한 생산계획을 각 기업이 맡고, 각 기업은 경쟁에 의해 有利한 市場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윤의 6割은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企業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국가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은 全體의 20%이고, 남은 23%는 자유가격, 그리고, 30%는 최고가격이 설정되고 27%는 지도가격으로 하였다. 국가독점 무역을 38개의 기업에 넘기고 이 기업들이 무역으로 획득한 외화는 유리한 비율로 국가가 사고 있다. 자원이 모자란 헝가리는 무역에 의존하므로 원료의 국제가격 인상으로 1970~1년 이후 국민경제가 타격을 입어 1974년 이후 헝가리경제는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헝가리 체제는 실제 당의 관료주의적 부패가 없어져 체제의 안정을 가져와 폴란드에서 기에 렉스와 같은 실패가 없었다. 농업 정책은 성공하였고 경영효과가 커 식료품 생산율도 높다.⁶⁷⁾

이와 같은 성공적인 경제정책의 기반위에 헝가리는 對外的으로도, 對內的으로도 놀랄만한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모든 헝가리 시민은 누구나 실제로 1년에 한번씩 서방국가에 여행할 수 있다. 전후 또는 1956년 헝가리 혁명시 외국에 망명했던 사람들은 자유롭게 年金受惠者로서 고국에 돌아 오고 있다. 더 나아가서 헝가리 정부는 그들의 국민이 원한다면 외국에서 일하는 것을 許諾하고 外國에서 올린 수입의 20%를 헝가리 국가의 무역적자를 메꾸기 위한 헝가리 화폐로 환전을 의무지우고 있다. 부룬너 (George Brunner)는 헝가리의 카다르체제를 「개화된 全體主義」(aufgeklärter Totalitarismus)라

하였다.⁶⁸⁾

헝가리는 소련의 세력권에 속하고, 헝가리는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지만, 당은 주어진 가능성의 틀내에서만 국민의 전체 복지를 추구한다는 사실이 헝가리에서 국민과 당 사이에 침묵의 社會契約으로 되어 있다. 당은 국가의 발전에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모스크바에 대한 충성에도 변함이 없다. 여하튼 헝가리는 동구지역에서 자유와 안정의 표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헝가리 체제는 동구권에서 한정된 自律性和 自由化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헝가리에서와 같은 모델이 DDR에서도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DDR은 소련 헤게모니 체계에서 전략상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동구에서는 지금까지 모스크바의 가장 충실한 정권에 속한다. 라인하르트 마이어의 견해에 따르면, 만일 헝가리 모델이 DDR에 적용 가능하다면 그것은 독일분단상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DDR 시민이 헝가리 시민처럼 1년에 한번씩 자유롭게 서방국가들에 여행할 수 있다면 동독과 서독사이의 경계선을 따라 쳐 놓은 엄청난 철조망과 장벽은 걷혀질 것이고 서독행의 망명도 중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DDR 정부는, 물론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동독 많은 시민이 여행의 가능성을 이용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유로운 여행은 서쪽으로 탈출의 욕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DDR 정권의 安定化를, 즉 국민과 국가권력 사이의 긴장완화를 가져 올 수 있다. 물론 DDR 시민에게는 헝가리의 정상적 시민보다 BRD라는 제 2의 고향에의 문

이 열리므로서 서독에서 머물러 社會主義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DDR의 폐쇄정책의 완화는 체제 내부의 분위기 개선에 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양독간의 긴장완화 과정에 강력한 자극을 부여할 것이다. 헝가리 모델로의 DDR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오스트리아식 해결 방법쪽으로 기울어 질 수 있다.⁶⁹⁾ 그 경우도 DDR은 오스트리아와 같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체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소련동맹권에 속하고 공산주의의 一黨體制 아래 있을 것이다. 그래도 DDR의 경계가 감옥의 벽으로 기능하지 않게 되고 문명화된 경계선에 가까워지면 양측의 주민들은 분단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도 DDR은 헝가리 발전의 길을 자동적으로 開拓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모스크바가 헝가리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를 참고 있지만 DDR에게 헝가리에서와 같은 자유로운 상태를 허용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두번째 문제는 DDR지도부가 그러한 체제내부의 완화를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호네커는 카다르가 아니다. SED정권은 모스크바의 지도층에 위기가 보일 때 (안드로포프-체르넨코 때) 서방측과의 교역과 차관에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외교에서 놀라울 만큼의 유연성을 보여 주었으나 모스크바의 엄격한 서독여행 허가 거절에는 순하게 적응하여야 되었다. 그러므로 DDR정권이 그들의 시민을 헝가리 모델에 따라 서방측에 규칙적인 여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날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실제 DDR은 소련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공산주의 독재체제에서 민주적 자유를 포기하고 있어 서독이 지향하는 가치와 생활양

식과는 전혀 이질적인 체제에 속한다. 이로 인하여 양독간의 정상화 과정은 한정된 협력관계 이상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또한 동구전체의 문제와 관련되고 있다. 그러므로 東西對立構造 가운데 가장 예민한 독일문제는 전체 유럽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관련 아래 해결될 문제이지 고립된 두 나라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해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전체 유럽통일은 동서긴장의 평화적 극복으로 가능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드골이 제창한 우랄에서 대서양까지라는 유럽조국의 장기적 이상이 內面的 正統性을 상실하지 않고 있는지 모른다. 협력과 긴장완화 노력에서 중요한 것은 공산측과의 대화와 협력의 한계선을 조금씩 좁혀가므로서 서로의 차이를 가능한 없애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정권의 지배를 안정시켜 공산 지배 아래 있는 국민의 자유에 대한 관심과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실제 놓인 문제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공산주의적인 권력의 독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과 空洞化는 1953년 DDR 이나 1956년 헝가리 또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와 같은 사태를 야기하기 쉽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평화운동과 代案實踐運動을 통하여 독일의 「핀란드化」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서독의 대서양 공동체의 확고한 지위와 민주주적인 안정으로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서독의 內部의 안정은 실제 양독간의 정상화의 결정적인 전제가 되며 진정한 의미에서 양독간의 정상화는 독일분단의 조건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적 전망이 서 있지 않은 국가적 통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인하르트 마이어에 의하면 독일문제의 해결은 DDR에서 어느날 헝가리와 같은 상태가 지배하는 날 훨씬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⁷⁰⁾ DDR이 헝가리 체제화 되어 그 正統性의 문제와 내부의 동요문제가 해결되면 그들도 자신있게 양독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떨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독일의 재통일에 대한 독일인의 이니셔티브 문제는 앞서 시사한 바와 같이 전후세대의幅 넓은 평화운동의 확산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정치세력이 되었을 때 독일문제의 비전이 달라질 수도 있다. 또 통일을 전쟁에 기대해 본다는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철저한 폐허화를 초래할 것이다. 즉 내부에서 일어나는 통일의 의지는 좌절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독일인의 환경인식에 기인한 재통일은 별개의 차원에서 미소 양 초대국의 세력범위 구축에 영향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그리고 국내체제가 흔들리지 않은 범위에서 양독간의 多方面的 交流 擴張은 필지의 勢로 내다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문제의 중요한 열쇠는 소련에 있다. 소련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소련의 社會主義는 실패하였다.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자유를 억압한 결과 알콜중독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생산기술을 개량하여야 하는 데 정보교환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연구에 기본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소련에 비하여 중공은 그 나라의 현대화를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서방측의 자본, 기술,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으로 現代化된 經濟·軍事 大國이 되고 소련 실패의 전

철을 받지 않고 자유를 허용하는 유연한 社會主義 國家가 된다면, 공산권내에서 중공지도력의 발휘와 더불어 소련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또 소련내부의 요구에 의해 중공과 均衡을 이루려는 노력이 나오면, 東西獨은 統一問題에 이니시어티브를 쥌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결론은 獨逸問題에 있어서는 소련이 변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註

1. Eberhard Schulz, Die deutsche Nation in Europa, Bonn 1982, pp.135 ~ 145.
2. Richard Lowenthal, Die Ostpolitik, Stuttgart 1981, pp.3-7.
3. 제 1차 대전후 영국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유럽의 국제회의를 소집하였다. 그것은 1922년 4월 10일부터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열렸는데 영국은 러시아 혁명전의 부채의 상환과 혁명으로 인해 국유화된 영국의 재산 보상을 요구하였다. 독일은 이 회의서 영국의 대소련 배상요구가 독일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려, 독일은 소련과 라팔로조약을 체결, 소련과 外交關係 再開, 賠償의 相互放棄를 협정하였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 독일 불신을 야기하였다.
4. Gehard Heimann, Die deutsche Frage und die Künftige Ordnung Europas, in : Die Neue Gesellschaft, April 1985, p.344.
5. 오늘날 유럽은 정치·경제 체제에서 분단되어 있고, 또 동맹체제로 분단되어 있다. 東과 西의 지도세력에 가담하여 있으면서, 일단 전쟁이 터질 경우 공동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그들이다. 東과 西의 지도세력인 두 초강대국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상황 아래서 최근 서유럽에서는 유럽인의 공통적인 역사적·문화적 실체의식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 문제의식은 ①유럽은 어느정도 강요된 상태에 있으며, ② 어느정도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 ③ 어느정도 그들의 운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집중된다. Richard Löwenthal, Europas Eigenart-Europas Zwangslage-Europas Chancen, in : Leonhard Reinisch(ed.), Dieses Europa Zwischen West und Ost, München 1982, pp.152-161.
6. Golo Mann, Deutsche Geschichte des 19. und 20. Jahrhunderts, Frankfurt am Main 1958 : 上原和夫譯, 近代ドイツ史, 東京 1982, I, p.7.
7. Gehard Heimann, op.cit., p.345.
8. 1815년 독일연방 규약도 비인회의의 중요 의제였던 것이 사실이다.
9. Richard Freiherr von Weiszäcker, Die deutsche Frage aus der Si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trag über die Deutschen und ihre Identität auf dem 21.Deutschen Evangelischen Kirchentag in Düsseldorf am 8.Juni 1985, Europa Archiv(EA), Folge 14/1985, p.D394.
10. Text, in : Heinrich von Siegler, Wiedervereinigung und Sicherheit Deutschlands = WSD, I.Bonn 1967, p.4 : Max Weber는 비스마르크 제국건설을 「소년의 싸움」이라 하였다.
11. Text, in : Ibid., 6-5.
12. Golo Mann, Ibid., p.329.
13. detente의 意味內容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 東西間의 협력의 분위기, 2. 具體的 政策, 戰術, 3. 國際社會의 構造.
14. William, Safire, The New Language of Politics, New York 1972.
15. James Alexairder, Deadlock in Vietnam, in : Progressire, Sept. 1962,

- pp.20-24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Oct.8. 1966.
16. 실제 데탕트는 전후의 국제정치 구조의 「二極·冷戰체계」를 「多中心·相互依存 體系」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7. NATO. Informationsabteilung, NATO, Tatsachen und Dokument, Brussel 1976, p.377.
 18. Richard Löwenthal, Vom Kalten Krieg zur Ostpolitik, in : Die Zweite Republik, Stuttgart 1974, pp.604-699.
 19. WSD, pp.267-268.
 20. Ibid., p.269.
 21. Berber, Friedrich(ed.), Völkerrechtliche Verträge, München 1973, pp.376-377.
 22. WSD, p.325 : Ibid., p.45.
 23. Ibid., p.47.
 24. Materialien Zum Bericht zur Lage der Nation
 25. WSD, pp. 334-336 ; BRD 측은 Egon Bahr 이, DDR 측은 Michael Kohl 이 조인하였다.
 26. Henning Behrens, Das Problem der deutschen Teilung in den 80^{er} Jahren, in : 國際政治論叢, 第23輯, 1983, p.255.
 27. 國土統一院, 東·西獨 關係年表, 1941-1981, 1982, pp.196-271.
 28. Henning Behrens, op.cit., p.257.
 29.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Politik, April 2. 1985, p.4.
 30.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Zahlen-

Spiegel, 1983, p.98.

31. 65세 이상의 노령자에 한해서 서독방문을 허용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은 서독에 오면 귀국을 원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노동력 부족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1961년 8월 동독이 동서 베를린의 경계선상에 돌연 장벽을 구축한 것은 높은 임금을 찾아 서베를린으로 넘어 오는 동독의 노동자의 유출과 서베를린에 도망하는 동독 국민의 피난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연금을 타면서 살아야 될 노인들의 서독행은 돌아 오지 않으면 그만큼의 지불해야 될 연금이 동독금고에서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2. Zahlen-Spiegel, p.97.
33. Ibid, p.93 : 동독의 여행횟수 중에서 연금대상자 아닌 여행횟수는 1970년과 1971년에는 한명도 없고, 1972년에 11,000회, 1981년에 37,000회로 나타나 있다.
34. 韓國日報, 1984년 11월 16일
35. Wilhelm G.Grewe, Die Außen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 Karl Kaiser, Hans-Peter Schwarz(ed.), Weltpolitik, Bonn 1985, p.309.
36. 韓國日報, op.cit.
37. John W.Spanier,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London 1977, p.66.
38. Jean Memoirs Monnet, London 1978, pp.271-274.
39. Europa Union Verlag, Europa Verträge und Gesetze, Bonn 1975,

pp. 407-413.

40. 1954년 10월 23일에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서독간에 파리협정이 되었는데, 이로써 독일은 주권을 회복하고 재군비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에 따르면, 군비관리에 관한 의정서는 서독은 原子·生物·化學兵器 및 장거리 비행병기, 유도탄 및 感應機雷의 생산금지, 방비용 小船舶을 제외한 3,000 t 이상의 군함, 350t 이상의 잠수함등의 건조와 전략용 폭격기를 자국 영토내에서 제조를 금지하였다. Text in : Europa Verträge und Gesetz, op.cit., pp.407-413.
- 4,000t-5,000 t의 驅逐艦의 건조안도 나오고 있다. 奥材房夫, 巨大戰略의 構圖, 東京 1983, p.134.
42. Zahlen-Spiegel, p.31.
43. Eckard Jesse, Streitbare Demokratie, Berlin 1980.
44. Karlheinz Nicolauß, Demokratiegründung in Westdeutschland. Die Entstehung der Bundesrepublik von 1945-1949, München 1974, p.240.
45. Reinhard Meier, Die allmähliche Auflösung der deutschen Frage, EA, Folge 21/1984, p.646.
46. Ansprache von Bundesminister D. Georg Leber Zum Gedankens an den 17. Juni 1953. in der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in Bonn am 17. Juni 1985, in: Bulletin,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Nr.68, 19.6. 1985.
47. Ibid., Nr. 69, 20. 6. 1985.

- 48 . Heinz Rausch und Thece Stammen, DDR : Das Politisch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System, Munchen 1974, pp.28-29.
- 49 . Siegfried Kupper, Die DDR im Sowjetischen System und ihr Sonderverhältnis zur Bundesvepublik Deutschland , in : Hans-Peter Schwarz, op. cit., p.462.
- 50 . Siegfried Kupper, Politische Beziehungen zu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55-1977, in : Hans-Adolf Jacobsen (edo.), Drei Jahrzehnte Außenpolitik der DDR, München 1979, p.403.
- 51 . Bundesministerium für innevdeutsche Beziehungen, Reparationen, in : DDR-Handbuch, Köln 1979, p.906 f.
- 52 . Siegfried Kupper, op. cit., p.463.
- 53 . Ilse Spittmann, Warum Ulbricht stürzte in : Deutschland Archiv 6/1971, p.568.
- 54 . Bernard Willms, Die Deutsche Nation, Köln 1982, p.311.
- 55 . ソ連の軍事力 1985, 米國防省 報告書, in : 世界週報 1985, 5, 25, p.5 - 34.
- 56 . George Leber, op. cit.,
- 57 . Richard Löwenthal, Europas Eigenart-Europas Zwangslage- Europas Chancen, in : Locenhard Reinisch (edo.), Dieses Europa Zwischen West und Ost, München 1982, pp.152-161.
- 58 . Jacques chaban Delmas, Perspektiven für die Politische Zukunft Europas, in : EA, Folge 5/1985, p.22.
- 59 . 고르바초프는 첫 취임연설에서 「우리는 국가경제를 집중적 발전

의 체도에 올려놓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진보한 과학 기술과 사회적 노동생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 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국일보, 1985년 3월 14일. p.4.

60. 소련은 미국의 「전략방위 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 SDI)에 맞설 수 있는 테크놀로지도, 경제력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공격용전략 핵무기의 50%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그 조건으로 미국의 SDI 계획 취소를 내놓았다.
61. 韓國日報, 1985년 3월 23일.
62. Richard Freiherr von Weizsäcker, Die deutsche Geschichte geht weiter, Berlin 1983.
63. Reinhard Meier, Die Allmähliche Auflösung der deutschen Frage, in : EA, Folge 21/1984, pp.644-654.
64. 리차드 뢰빈탈 교수는 市場社會主義 (Marktsozialismus) 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Richard Lowenthal, Der Sowjetblock zwischen Vormachtkontrolle und Autonomie, Köln 1984.
65. George Schöpf lin, Die Reformfähigkeit von Sowjetsystem: Ist Ungarn ein Modell?, in : EA, Folge 4/1984, p.111.
66. Ibid., p.113.
67. Ibid., p.116.
68. Reinhard Meier, op.cit., p.648.
69. 50년대 Adenauer 는 한번 Moscow 에 대하여 이 방식을 제안했

다고 한다 : Hans-Peter Schwarz, Die Ara Adenauer, 1957-1963,
Stuttgart 1983.

70. Reinhard Meier, op.cit., p.654.